

가장 많이 읽히는 영어 성경 NIV-KJV-NKJV 순

신약 전문가 월러스 박사 “NIV는 읽기 쉽고, KJV는 우아하다”

영어 성경 가운데엔 NIV(New International Version)와 KJV(King James Version), NKJV(New King James Version)가 베스트셀러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독교매업협회(CBA)와 복음주의기독교출판협회(ECPA)는 최근 이 3가지 버전이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판매됐다고 밝혔다.

CBA는 이 단계에 가맹된 기독교매업체의 판매고를 기준으로 집계하는데, 그에 따르면 NIV, KJV, NKJV, ESV, NLT, HCSB, NASB, CEB, NIRV, Reina Valera 순이었다. ECPA는 미국 내 기독교매업체의 어른용 서적 판매고에서 성경 판매고만 추출하는 식으로 집계하며, 그에 따르면 NIV, KJV, NKJV, NLT, ESV, Reina Valera, NASB, NIRV, The Message, CSB 순이었다.

신약성경 번역에 있어서 권위자로 꼽히는 다니엘 월러스 박사는 “영어를 구사하는 서구에서 우리가 기독교

를 역사적 배경으로 갖고 있다면, 성경은 우리의 전통이기에 다양한 버전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영어 구사자들에게 KJV(킹제임스버전)를 추천했다. 그는 “이 버전은 우아하며, 운율이 있고, 아름다운 언어로 기술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세간의 인식을 의식한 듯 “더 이상 KJV가 가장 정확한 번역본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어 NIV는 읽기 쉬운 버전으로서 추천했다. 성경의 각 장이 말하는 담론과 내러티브를 한 문단씩 읽어가기에 가장 유용하다는 이유다.

성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으로 확고부동한 지위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2012년 라이프웨이리서치의 미국 내 조사에 따르면 교회 출석자들 중 80%가 성경을 매일 읽지 않으며, 2013년 바나 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 중 57%는 1년에 5번 이하로 성경을 읽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김준형 기자



“영상설교, 이렇게 하세요” = IT산업의 눈부신 발전으로 목회 환경 또한 변화의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교회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감성문화에 익숙한 세대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영상을 통한 교회 홍보 및 교육, 설교에 도움을 주는 <영상설교 및 교회 영상물 제작 세미나>가 24일 LA 모 식당에서 열려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한 목회자들이 강사의 설명에 귀 기울이고 있다.

‘흑암의 땅’ 이라크 크루드족에 복음 전하러 떠난다

첫 현지 거주선교사 탄생
 김정호 목사 부부



김정호 목사

‘중동의 집시’로 통하는 크루드족, 4천년이라는 유고한 역사와 언어, 문화를 지닌 단일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크루드족에겐 ‘국가’가 없다. 3000만~3800만명 가량으로 추정되는 크루드족은 오스만투르크제국이 해체된 1차 세계대전 이후 터키, 이라크, 이란, 시리아 등지에 흩어져 살며 수난의 세월을 견뎌왔다. 오랜 기간 ‘흑암의 백성’으로 살아온 이들 크루드인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한국인 선교사가 탄생해 화제다. 버지니아주 주사랑선교교회 담임목회를 거쳐 현재 샌터빌초대교회에서 협동목사로 섬기고 있는 김정호 목사 부부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오는 10월말 파송예배를 드린 뒤 이라크 북부로 떠난다.

이곳은 2003년 미국-이라크 전쟁 이후 한국 정부에 의해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된 탓에 한국인들의 왕래가

뚝한 지역이다. 그간 몇몇 단기선교팀이 다녀가긴 했지만, 크루드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복음을 전하는 현지 거주선교사는 아직까지 단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김 목사 부부는 제 1호 이라크 크루드족 한인선교사가 되는 셈이다.

1962년 5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김정호 목사는, 26세 때 모리해 웨스트코스트대학 BSIE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했으며, 미주장로회신학대학에서 신학 학사(Th.B)와 교역학 석사(M.Div.) 과정을 거쳐, 미드웨스트 대학에서 목회학 박사과정(D.Min.)을 수학했다. 버지니아 주사랑선교교회 담임목회를 하던 당시 자서전 <스올의 벚속(The Depth of Sheol) - 부제: 고난의 깊은 바다 속에서>를 출간했다. 책에서 그는 15년이란 세월 동안 혈액투석과 세 번의 신장이식 수술 등 병마와 싸우며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난 체험을 그려내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병마로 인해 궁핍과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덤으로 얻은 ‘제2 인생’이기에 이제 남은 시간은 오롯이 하나님만을 위해 사용하고 싶다는 게 앞으로 그의 바람이다. 그래서일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라는 이라크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부부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 한 점 보이지 않는다.

되려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으니 그저 순종할 따름”이라며 비장한 각오가 엿보인다. 곳곳에서 소수종파간 유혈충돌과 테러가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웬만해선 가기 어려울 성 싶다. 게다가 김 목사 혼자가는 아님, 그의 아내까지 함께 하는 발걸음이니 필시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리라. 조만간 선교지로 떠나는 김 목사 부부에 게 선교지에 떠나기까지의 에피소드를 들어봤다.

» 8면으로 이어짐
 정한나 기자

전 세계 성도들, 북한 지하교인들의 신앙 배운다

서울USA, 北교회의 신실함
 닦기 위한 100일 기도운동

그간 북한 교회와 관련한 기도운동은 주로 박해 아래 놓인 북한 지하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발상의 한 기도운동이 이목을 모으고 있다. 바로 극악한 핍박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북한 교인들의 신앙을 본받아 일상의 삶에 적용시키기 위한 기도운동이다.

순교자의목소리(VOM), 데어투세어(D2S) 등 미국의 다양한 선교단체들의 사역을 한국의 상황에 맞게 연결시키는 사역을 펼쳐 온 서울USA(대표

에릭 폴리 목사)는 최근 영문판 사이트를 통해 지난 23일부터 100일간 ‘북한 교인들이 이끄는’ 전 세계 기도운동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서울USA는 이 같은 기도운동을 계획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북한 지하교회는 가장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신실함을 잃지 않고 있으며 우리는 북한의 교인들에게 배울 것이 무척 많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100일간의 기도운동 중 참여자들은 가까운 이들과 소그룹을 이뤄서 북한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방식에 따라 함께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 9면으로 이어짐

Sarang Healthcare Ministries
 32년 전통의 주류사회 크리스천 플랜
 건강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www.saranghealthcare.com 213-986-8119
 회원단체 CTS AmericaTV GBC CGNTV USA

나라정비 ASE 유렵차 전문점 SMOG CHECK 323.734.4881 월~금: 8am~6pm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턴과 12가

나라 오토 텐트 범퍼·도어·바디복원 무료견적·Rent Car

지긋지긋한 당뇨병 타복출
 평생을 안고가던 당뇨병이 이제는 치료가 됩니다. 새로운 당뇨 개선제 PRO-Z를 6개월만 복용하시면 지긋지긋한 당뇨병에서 해방되어 정상인과 같은 체질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줍니다.

신제품 소비자 공급가 \$76
 * 한국에서는 \$145에 판매중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는
 UCLA의과 대학 박사로서 40여년간 연구 개발한 PRO-Z는 미국FDA에 치료 약으로 신청중이며 주성분인 아연과 크롬으로 의약품계에서 획기적인 연구개발로 임상평가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재향군인 병원에서 임상실험 결과 최소한 6개월복용시 체중에 탁월한 효과로 개선됨을 확인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췌장베타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시키는데 PRO-Z가 해결해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종류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 유지를 하는데 그쳤으나 PRO-Z는 췌장에 인슐린 분배를 확실히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제로 세계 최초로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고있는 당뇨 개선제입니다

당뇨 프로-지 임상 연구소
 1543 Olympic Blvd, Suite 505
 Los Angeles, CA 90015
 매주 토요일 당뇨세미나 실시

213.381.7273

당뇨병의 원인 치료개선제 PRO-Z

AB1266 법안 폐지 촉구한다

TVNEXT.org 대표 새라 김 사모

“서명에 걸리는 시간 10분 투자로 다음세대 구해야”

-AB1266 법안이란?(Co-Ed Bathroom Bill)

캘리포니아의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이 모든 운동종목을 남녀 구분없이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예: 레슬링, 권투, 풋볼 등) 화장실, 탈의실 및 샤워장을 남녀 공용으로 서로 함께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주민들의 온라인 반대서명운동에도 불구하고 결국 8월 초에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제리 브라운(Jerry Brown)에 의해 통과됐습니다.

만일 AB1266 법안이 이번에 폐지되지 않을 경우, 2014년 1월부터 즉각



새라 김 사모

적으로 모든 공립학교(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서 시행됩니다. AB1266 법안이 얼마나 나쁜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살펴 보겠습니다. AB1266 법안이 통과된다면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성적체성의 혼돈은 물론이거니와, 늘어나는 학교 안에

서의 성폭행, 그로 인해 늘어날 십대들의 정신질환, 심리적 & 육체적 폭력으로 인한 피해, 원치 않는 임신과 늘어나는 낙태 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너무도 비인간적인 일들이 바로 유치원생(K)부터 고등학생 사이에서 자행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런 심각한 일들은 학교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가정, 사회, 문화, 국가 속으로 번져갈 것이라는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십대들의 성적 혼란은 곧 사회의 성범죄뿐 아니라, 사회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경제면에서도 매우 심각하게 부도덕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사악한 법안이 많아질수록, 이보다 더 사악한 법안이 나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준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서명하는 방법

SB48의 법안 서명 때와 동일합니다. 웹사이트 TVNEXT.ORG에 가서 먼저 1)서명하는 방법을 자세히 읽으시고 2)서명하시고(꼭 설명에 나온 대로 따라주세요) 3)지인들과 교회에 알려주세요 4)서명운동을 도움 분은 TVNEXT.ORG로 연락하십시오.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

종하는 사명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고 자녀들의 영혼을 파멸시키고자 하는 악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방관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방관하는 죄를 짓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명하는 시간은 10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소중한 우리 자녀들과 세상 속에서 무엇이 참된 길인지 몰라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어린 영혼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위하여 AB1266 법안 폐지 서명운동에 여러분들께서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귀한 일에 여러분의 동역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은혜 누리는 곳



장사모가 주최한 특수장애사역 위한 '교사 세미나'가 21일 오전 나성영락교회에서 열렸다.

장사모 주최 교사교육 세미나

21일 오전 10시 교사교육 세미나가 장사모(장애인을 사랑하는 사역자들의 모임, International Disability Ministry Association) 주최로 나성영락교회에서 열렸다.

'진정한 천국은 장애인도 동일한 은혜의 예배, 지성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라는 취지에서 'Thy Kingdom Come'이란 제목으로 열린 세미나에는 김은경 미술치료사, 주디 거피(Judy Guffey) 무용치료사, 이보배, 박현주 음악치료사, 캘리포니아주립

대학교 노스리지 캠퍼스(CSUN) 장애인 신체활동센터의 임재춘, 김유미 임상감독, 은누리교회 김박선미 전도사가 참여해 교회에서 장애인을 돕는 전문가, 사역자, 봉사자들에게 장애인에 대해 효율적으로 드릴 수 있는 커리큘럼을 나눴다.

오전에는 각 강연자들이 오리엔테이션 및 특수 아동을 위한 표현예술 치료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전했다. 이후 자폐아를 위한 신체활동, 잔양·울동·공과활동, 음악치료, 무용치료, 미술치료 등 6개 세미나에서는 각 강연자들이 커리큘럼을 시연하고 참가자들이 참여해 보고 소감을 나눴다.

미술치료에 관해 강연한 김은경 치료사는 "미술치료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 생각을 미술활동을 통해 표현해 안도감과 감정의 정화를 경험하게 하고 자신의 내면을 돌아 볼 수 있게 해 자아 성장을 촉진하는 치료법"이라 소개했다.

특히 정서적, 사회적 발달문제를 지닌 아동들의 치료 사례를 제시하며 미술치료는 "작품에 대한 평가보다는 개인의 상상력과 개성을 중요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긍정적 자아형성에 도움을 주며 미술활동을 통해 또래간의 협력 및 상호존중 등을 배울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또 10세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의 치료 사례를 소개하며 "미술치료는 소근육발달, 시각적 운동기능 향상 등 신체적 발달에 도움을 주며, 과잉행동 및 공격성 아동에게 자신의 충동

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고 말했다.

아동뿐 아니라 19세 아스퍼거 여성이 컴퓨터 아트를 통해 치료된 사례, 33세 정신분열증 여성이 벽화(Mural painting) 작업을 통해 증상이 호전된 사례, 치매를 앓는 69세 여성이 자신의 기억과 관련된 이미지들의 콜라주를 통해 치료된 사례도 소개했다. 치료 사례에 이어 소개한 12주간의 커리큘럼은 성경의 각 인물들의 신앙을 구체적인 미술활동을 통해 배우고 실천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20년간 전문적으로 운동요법 및 무용치료를 해 온 주디 거피 무용치료사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후 신체적인 불편을 겪는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동작을 소개하고, 성경스토리와의 연관된 활동을 시연했다.

2009년 5명의 장애인 사역자들이 모여 구성된, 주정부 비영리단체인 장사모는 매년 장애인을 위한 Sibling Camp와 Snowboard Camp를 열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공과교제 제작, 장애인 사역 네트워크, 장애인 사역 선교사를 위한 사역지원 등을 하고 있다.

주디 한 기자

VISIONDRIVE HD BLACK BOX

SF코딩으로 더욱 더 고급스러워진 HD블랙박스!!

2채널 블랙박스, 전후방 또는 실내를 항시녹화

영상 보정 기능으로 정확한 영상 분석/LCD 영상 재생 / 확대보기 기능

고성능 GPS 센서 내장/ 속도, 위치, 시간, 방향까지 확인

Battery 방전 방지 시스템

구입문의 : **Joseph Park** 213.235.7836
www.carblackboxstore.com 310.902.3944

천천히 다 둘러보세요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usajyk@gmail.com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증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등록 마감일: 12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는 11월 1일)

> 한영이증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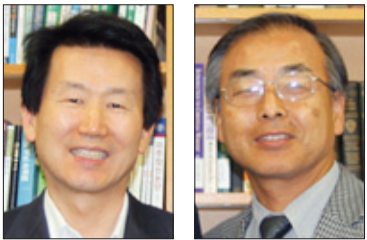
본 과정은 주로 한영이증언어로 진행되며,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256-1311 EXT. 1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새 시대 새로운 목회의 지평

“미래 목회 성공하기 위해선 ‘뉴미디어’ 활용이 관건”



여운영 목사(좌)와 양경선 목사(우)

“목회자들 소셜미디어 활용 저조한 이유는 정보 부족 때문”

스마트 목회전략 소개하는 “뉴미디어 세미나” 내달 1일 열린다

미디어시대에 스마트 목회전략을 소개하는 “뉴미디어 세미나”가 오는 10월 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까지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열린다.

남가주교독교교회협의회(이하 남가주교협, 회장 진유철 목사)가 주최하는 이 세미나는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 회원 교회들에게 미디어 목회전략을 소개하고 교회 환경에 맞는 스마트폰 목회 및 선교 IT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열린다.

세미나는 미주복음방송, CTS의 협력으로 진행되며, 프로그램은 클라우드 서비스 및 앱 제작 데모, 클라우드 앱 운용 전략 등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미나 강사로 나서는 미주복

음방송 뉴미디어실 실장 여운영 목사는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흐름인 소셜 미디어를 통해 어떻게 세상에 접근할 수 있는지 배우게 될 것”이라며 “기존에는 라디오나 TV, 신문을 통해 복음이 전해졌다면, 지금은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등 인터넷에 접속해서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세미나의 요지”라고 밝혔다.

이어 “클라우드와 빅데이터의 개념을 설명하게 될 것이다. 이전에는 노트북이나 외장하드 등에 데이터를 저장해놓고 다운로드해 사용했었는데, 이제는 클라우드에 저장해놓고 개방시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져 목회에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며 “그리고 데이터들을 나에게 맞게 가공하고 활용해 재생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빅데이터다.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 어떻게 하면 목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 살펴볼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실제적인 데모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여 목사는 “소셜네트웍을 도외시하는 목회자들이 있는데 인터넷 세상을 중심으로 봐야 한다. 선한 사람이 쓰면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사람이 쓰면 쓰레기가 나오는 원리다. 지금은 개방의 시대인데 뉴미디어를 모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절름발이 목회라 할 수 있다. 목회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것들을 소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가주교협 총무 양경선 목사는 “목회자들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목회에 활용하는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지속적인 정보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여 목사는 “세미나에서 뉴미디어를 이용해 연결고리를 갖고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라며 “담임 목회자들도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IT목회가 중요한 시대로 접어들었고, 젊은 목회자나 영어권 목회자들 혹은 성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뉴미디어 활용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박신욱 목사를 비롯해 여운영 목사, CTS기독교TV 김종철 사장, CTS IT 미션디렉터 피터 김 목사 등 4명이 서게 된다.

세미나 등록비는 없으며,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소정의 선물과 추첨을 통해 갤럭시 태블릿 10.1, TV Pad, 뇌보감골드, 책상 시계 등의 푸짐한 경품과 점심 뷔페가 제공된다. 또한 미주복음방송 뉴미디어실은 원하는 교회에 무료로 교회 앱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문의: (213) 381-1190(여운영 목사), (562) 565-2234(피터 김 목사), (213) 255-1725(양경선 목사)

토마스 멩 기자

세미나 강사에는 미주복음방송 사

토마스 멩 기자

KCCD, 재난 대비 세미나 개최

교회 지도자 대상으로 교회가 피난처 되는 법 소개



한인기독교커뮤니티개발협회 주최 재난 대비 세미나가 21일 오전 찰스 H. 김 초등학교에서 열렸다.

한인기독교커뮤니티개발협회(KCCD, 임혜빈 회장)가 지난 21일(토) 오전 LA한인타운 옥스포드와 1가에 있는 ‘찰스 H. 김’ 초등학교(교장 샌드라 김)에서 재난 대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일반인은 물론 지역교회 및 커뮤니티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기안전, LAPD 비상

출동 훈련 소개, 기업 및 단체를 위한 피난처 이용법, 교회가 피난처가 되는 방법 등 재난이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소개됐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앞서 국토안보부 산하 백악관 신앙정책실 데이빗 마이얼 목사, 이사장 박종대 목사, 박효우 목사(남가주교협 수석부회장) 등이 인사말을 전했다.

Advertisement for Dana Hospital (다나병원) featuring 3D brain scans, genetic testing, and insurance services. Includes contact info: 621 S. 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 T.213.487.0691

Large advertisement for Los Angeles ORT College. Features the college logo, contact info for Grace (213.703.6863), and a list of courses including Medical Office Management, Business Management, and Accounting. Also lists ESL programs and financial aid options.

청소년 사역을 위한 <제1회 자녀사랑찬양제> 개최

남가주중부교협 KYVC 지원 취지



10개팀 출연진들이 마지막 무대에 올라 '여기에 모인 우리'를 합창하고 있다.

남가주중부교협의 한인청소년비전센터(KYVC, 대표 김영길 목사, 이사장 김영대 목사)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사역을 위한 '제1회 자녀사랑찬양제'가 성황리에 열렸다.

지난 23일 오후 6시 감사한인교회(김영길 목사)에서 300여 명의 청중

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부 예배는 사회 김영대 목사, 기도 오병근 장로, 설교 양희철 목사 순으로 진행됐다. 양목사는 '우리의 피난처'(시편 46편 1-11)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세리토스 시 조재길 씨가 김영길 목사, 김영필 장로, 오병근 장로, 안도성

장로에게 청소년 사역에 대한 감사패를 증정했다.

제2부 음악회는 사우스베이한인교회(안대진 목사)를 비롯해 10개 팀이 참여했다. 카이로스 미션워십댄드 팀이 첫 번째 무대에 올라 '예수로 나의 구주삼고'를 흰색 드레스를 입고 음악

에 맞춰 멋진 춤을 선사해 관객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번 음악회에는 라팔마한인연합감리교회, 레위남성성가단, 열반인 청소년합창단, 뉴라이프커뮤니티교회, 아름다운동산교회, OC원로목사중앙단, 사우스베이한인교회, 에베라

스팅합창단, 감사한인교회 등이 참여했다. 이날 마지막 무대는 모든 출연팀 출연자들이 무대에 올라 '여기에 모인 우리'를 합창할 때 300여 청중들도 참여해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서 막을 내렸다.

청소년비전센터는 지난 2007년 1월에 설립돼 지금까지 여러 교회와 학부모들과 목회자들이 도움으로 청소년들 선도에 앞장서고 있다. 센터에서 펼치고 있는 사역은 매주 한번씩 남가주지역의 5개 고등학교를 방문해 300여명의 학생들을 신앙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KYVC는 비행과 마약, 그리고 여러 사회문제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꿈을 심어주기 위해 '해피라이프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오고 있고, 'Dream&Job Fair'로 일컫는, 청소년들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명사들을 학교로 초청해 강의를 열어 도움을 주고 있다. 또 자녀들을 위한 기도모임과 3.1절 한글로 글짓기 대회, 경찰서와 연계해 마약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학부모들의 협찬으로 펼쳐 왔다.

>문의: (714) 904-6298

이민가정 갈등 해결책 제시하는 "커플멘토링 스쿨" 열려

미주두란노세미나팀 FBM 공동 주관



미주두란노 세미나팀과 FBM이 공동 주관한 '커플멘토링 스쿨'이 지난 16일 두란노서원에서 개최됐다.

미주두란노 세미나팀과 FBM(가정을 세우는 사람들)이 공동 주관한 '커플멘토링 스쿨'이 지난 16일 두란노서원에서 개최됐다. 43명이 참석한 이 행사에서는 '연애공식' '부부 행복공식'의 저자 금병달 목사·금정진 사모 부부가 강사로 나서 갈등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는 한인 이민가정을 돕기 원하는 이들에게 강의를 펼쳤다.

금병달 목사·금정진 사모는 멘토의 역할, 멘토링 멘티가 얻는 유익 등 멘토링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과 미혼 커플을 위한 혼전상담, 신혼커플과 기혼커플을 멘토링할 때 유의할 점 등을 다뤘다.

금정진 강사는 신혼커플들을 위해 유대인의 태교 방법을 통해 산모와 아기가 애착을 쌓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리고 삶 전체를 통해 발달되어야 할 과제들

을 알아보고 중년기, 노년기를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멘토링의 핵심을 짚어줬다. 아울러 멘토링할 수 있는 도구인 Prepare-Enrich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금정진 강사는 "참석자들 가운데는 이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에서 비행기를 타고 온 청년, 그리고 시애틀에서 온 커플들이 있었는데, 한인 이민 가정의 다양한 필요를 도와 주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멘토링 사역이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공감했다"고 밝혔다.

한편 FBM은 오는 10월 17일(토) 오전 9시 30분 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FBM센터(3319 W. Lincoln Ave., Anaheim)에서 '커플관계진단 자격증' 세미나를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 (714) 287-2458

토마스 멩 기자

초스피드 다이어트 **미용침** · 열극촉수 (안면지방제거)

초강력 정력제 + 원형탈모 대머리

치질
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하는 증상

매에는 숙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한달분

자궁물혹이나 자궁근종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되는 분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Tel: 213.380.7800/380.6868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위 마드모아) 영업시간: 월~금, 10시 ~ 5시 / 토 10시 ~ 2시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FEDERAL 및 STATE TAX CREDIT 세미나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지금까지 제공해오던 TAX CREDIT 중 하나가 올해로 종료를 합니다. 당장 REFUND 는 기대하지 못하시더라도 지금 받아 놓으시면 향후 10 년간 STATE TAX 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신청 가능한 STATE TAX CREDIT 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더불어 EMPLOYMENT 와 관련된 FEDERAL TAX CREDIT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한인타운과 다운타운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자들의 직접적인 TAX 절감효과를 보실 수 있는 TAX CREDIT 세미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3년 9월 30일 P.M.6:30
- 장소 : 엠마오교회 (691 S. HARVARD BLVD 2 층 LA, CA 90005)
- 주최 : BH&J ACCOUNTING FIRM(방재웅 CPA)
- 예약 : 213.386.1665

*추후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미리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긴히 쓰임 받는 그릇되자

디모데후서 2:19-22



서울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의 믿는 사람들의 명단을 가지고 때리고 죽이고 가두려고 가는 사울을 만났을 때 그 사울에게 “나는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쓰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박해하며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한 사울이 예수님의 한 마디에 녹아졌습니다. 그러나 눈은 멀어 장님이 되고 갈기를 누군가에게 도움받아야 하는 상황에 접했을 때 3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자신의 모든 것은 끝이 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눈이 멀었으니 사물을 볼 수도 방향을 알 수도 없고 자기 처지도 상황도 전혀 분간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 가말리엘 문하생으로 최고학부를 공부했고 말 잘하기로 소문난 젊은이가 꿈이 꺾이는 꼴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내가 설계한 네 인생과 꿈은 이제 끝이 났고 내가 너를 네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게 했고 자라게 했으며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서 가말리엘 문하생으로 율법에 정통한 학업을 이루어 가게 한 것도 너를 쓰기 위한 내 그릇 삼기 위한 것이리라”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울에 대한 지상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시켜서 사울에게 안수하게 하실때에 눈에서 고기비늘같은 것이 쏟아지며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니까 그가 갑자기 일어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추켜들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간 믿는 사람들을 잡아 해치며 예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복음을 훼방했던 그가 갑자기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행9:20)한 이후로 96살에 순교하기까지 그의 평생을 세계선교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는 유럽문화의 불을 지켰으며 세계선교의 기틀을 닦고 유럽과 아시아를 넘나들면서 복음의 제물되는 생애로 살다 순교했습니다.

요긴히 쓰임 받기 위한 조건 - 회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두고 보실 수 없어서 택하시고 진리의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듣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게 하실 때에 회개가 터져 나오기 마련입니다.

회개운동(Repent Movement)은 지금까지 자기가 방향을 설정하고 자기 꿈을 설계하면서 그 꿈을 실현해보고자 노력하며 애를 쓰며

가던 그 길을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전환 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인생은 지금까지 자기인생을 자기 멋대로 설계하고 자기 꿈을 성취해 보자고 애썼던 모든 것들이 너무나 어리석고 허황된 것이었고 부질없이 물거품 같은 수포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과 기대에 합당하게 살아드리는 것이 인생을 예수님 안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회개는 필연적으로 누구에게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온전한 회개가 되지 않아 성도가 되지 못하고 교인으로 교회만 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릇으로 사용해 가시는데, 그 중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계획이 있으셔서 나게 하신 줄 깨닫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면서부터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고 목적을 두고 쓰실 계획 가운데 나게 하신 그분과의 만남과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에게 합당히 쓰임 받는 것이 그 인생을 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망적이고 성공적으로 사는 인생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긴히 쓰임 받기 위한 조건 - 진리의 깨달음

본문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후메나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있어 거짓 교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일에 선동하고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바울은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딤후2:14)” 하셨습니다. 이단은 교회 안에 침투해서 사람이 듣기 좋은 말로 부추기며 꾀어냅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주머니를 노립니다. 이단사슬이라는 것은 듣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노략질해서 지옥에 떨어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합니다. 이단에 휩쓸리는 영혼들은 믿음이 파산되고 독한 창질이 썩어져 가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멸망이 서둘러지고 있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진리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를 말합니다.

즉 마16:16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지옥갈 수 밖에 없는 저주스러운 형벌의 죄악을 회개만 하면 용서받는 것이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19절에 ‘인침은 사인(Sign)이나 인감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스파라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감도장 찍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음과 동시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스파라기스’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무리 이단사설이 그럴싸하게 접근하여 선동하고 충동질해도 절대 동요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터 위에서 회개하고 거듭나 성령으로 인감 도장 찍어 놓은 영원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요 10:28-30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내세에 대한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온전히 믿어 성령 받음으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 어떠한 환란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긴히 쓰임 받기 위한 조건 - 자아를 내려놓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 어떻게 쓰시려고 나게 하시고 택하여 쓰시시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기를 기대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그릇으로 보시고 계시느냐를 신경 써야 합니다.

20절에 있는 “큰 집에는” 하는 소망 가꾸는 신앙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곳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 중에는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히 쓰는 그릇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 금그릇에 된장을 담아 먹는다고 하면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쓰실 그릇으로 기대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용도적 기대에 쓰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의 쓰시는 계획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릇이 깨끗해야 무언

가를 담아 쓰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릇이 더럽고 때가 묻어있다면 그 그릇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하십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에 요긴히 쓰임받으면 자신이 금그릇 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금그릇은 자기 가치로 행세하려고 들기 때문에 남들로부터 대접받기만 좋아합니다. 혹은 부자집에 금그릇이 있어도 그것이 귀해 아무 때나 쓰지도 못할 것이고 아무데나 놔두지 못해 금고에 넣어 둘 수도 있습니다. 금그릇은 그릇의 용도보다는 존재가치에 의미를 둔 것입니다.

모두가 섬겨야 할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자기를 낮추어 질그릇처럼 사용 받더라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깨끗이 하여 절대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죄악에 찌들지 않고, 성별된 생활을 통하여 자신을 깨끗이 간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대로 써 주십시오. 계속 주님의 손에 붙들리어 어떤 일로든지 쓰임 받는 요긴한 그릇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귀한 그릇은 자기가치 때문에 천한 일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스스로 자기 가치를 높여놓고 주님이 쓰시겠다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귀한 그릇이 아닌 요긴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여 계속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천국 건설과 확장을 위한 일에 엄청난 공적을 쌓는 일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천국 문에 들어설 때에 예수님이 두 팔 벌려 품어 안으시며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나라가 크게 확장되었으니 내 영광에 참여할지어다” 하시도록 우리 모두 귀한 그릇이 되기보다 요긴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힘쓰도록 합시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설교

한국 선교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크리스천투데이	7면 설교	동영상 설교 / 인터넷 설교			
경북기독신문	3면 설교	기도원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COX TV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3시반 / 동부 오후6시반
워싱턴DC.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6시 / 동부 오후9시
AMI190 LA 미주 복음방송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AMI310 기본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5면 설교문	온라인 칼럼설교
AMI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20분~11시50분		기독일보	오프라인 칼럼설교	인터넷신문 설교문
성은교회 당회장. 성은동산 원장. 예정중경 총회장.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선목회 회장. You Tube로 지구촌 어디서든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 시청 가능함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TEL. (02) 420-3351-3 / HP. 011-222-5591		

2013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1-20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niv.org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정회원 인증
 특전: Sevis I-20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캘리포니아 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Fax. 818-435-2441
 www.myccu.us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oi Chang Kim: (213) 268-9367
 hoichangkim@hanmail.net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길 김호 박사

9월 9일 개강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edu
 www.chongshinus.edu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i.org

주의사랑 선교사역원

‘신부지킴이’ 선교사 양성기관

세계명말을 향하여 [시122:6]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선택받은 이방나라 대한민국을 향하여 [출 19:5-6]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마지막 교회를 향하여 [골 3:3-6] 그러나 같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의 한 사람이 그 임하는 날에 제가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밀미암이 제거되리라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러록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 지어다.

아버지의 마음과 신부의 영성 저자 직강 세미나

매 주 : 금 오후7시~토 오후1시 (신부의 영성 클래스)
 일 오후7시~월 오후1시 (아버지의 마음 클래스)
준비물 : 성경찬송, 침낭 및 세면도구 지참
선착순 7명제한: 1박2일 코스 (무료 숙식 제공 및 등록비 없음)
강 사 : Rev. Daniel & Monica Baik (선교학 박사 및 현 베데스다 신학대학 교수)

장소: 11373 Oasis Rd. Pinon Hills, CA 92372

전화: (714)932-8993, (760)868-8583

www.godslovemission.com, ocmothergoose@yahoo.com



부목사 청빙 광고



San Francisco Bay 지역에 위치한 콘트라코스타 한인장로교회(PCUSA)에서 함께 동역할 풀타임 부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신청 자격:

1. 정규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한 분
2. 5년이상 목회 경력이 있으신 분
3. 이민교회에 대한 이해와 사명을 갖고 사랑과 열정으로 헌신하실 분
4. 목회 행정, 제사 훈련 및 목회 전반에 능력과 경험이 있는 분
5.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6. 한국어/영어 이중 언어가 가능하신 분

제출서류:

1. 이력서
2. 신앙 고백서
3. 자기 소개서 및 증명사진(가족사진 If married)
4. 학력 증명서
5. 추천서 2부
6. 목사 안수증 사본
7. 설교 CD 2개

* 1차 심사후 기타 증명서를 요청할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마감: 2013년 9월 30일

연락처: 콘트라코스타 한인장로교회 인사위원회

(최용훈 장로: cckpc.choi@gmail.com 9258992916)

CONTRA COSTA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전성호 CCKPC.ORG

2460 Old Crow Canyon Rd, San Ramon, CA, 94583

부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은혜 성로원 교회에서 함께 동역 할 풀타임 부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찬양인도를 하실 수 있고 하루 3시간 이상 기도에 열심이 있으며, 개척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전도에 열정이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사역할 분을 찾습니다.



신청 자격:

- 정규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한 분,
-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제출서류:

1. 이력서
 2. 자기 소개 및 신앙고백서
 3. 학력증명서
 4. 목사 안수증 사본
-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마감: 2013년 9월 30일

Email : jjohn@hanmail.net

주소 : 850 S. Bonnie Brae St, Los Angeles, CA 90057

은혜 성로원 교회 송성엽 담임목사

850 S. Bonnie Brae St, Los Angeles, CA 90057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



제이슨 송 교장

새언약(New Covenant)

크리스천사립학교

미국내 공교육 문제가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가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동성에 교육 의무화를 비롯한 반기독교 교육이 탄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교육에 대한 보장되지 않는 기대보다 이제 교회가 적극 나서 교육문제에 대한 해법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본지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차세대 새개념 대안학교'를 설립해 운영 중인 교육전문가들의 글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고등학교 동창이 페이스북(이하 페북)에 동영상 하나를 올려놓고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전쟁이나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두 사람이 사랑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고, 그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모두 다 이 동영상을 봐라!" 무심코 클릭했는데 이걸 게이 커플의 결혼 프로포즈였다.

이 동영상을 본 후 필자는 이렇게 댓글을 올렸다: "나도 전쟁이나 폭력을 싫어한다. 나도 두 사람이 사랑하고 가정을 꾸미고 살아가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다."

그러나 이것(동영상)은 창조주가 만들어 놓으신 '사랑'이 아니다. 그렇다고 내가 동성연애자를 미워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공허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죄인을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해서 내가 알기조차 못하겠다. 그건 그분의 비지니스다.

그러나 이것은 꼭 지적하고 싶다. 내가 동성연애를 거부한다고 나같은 사람에게 "완고한 편견자(bigot)" 내지 "선입관적인 편견자(prejudiced)"란 라벨을 붙이지 말라.

동성연애자들이 그들의 주장을 앞세우고 표현하듯 나도 내 의견과 주장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 특히 나같은 이민자로서 심한 인종차별을 체험한 사람에게 그런 라벨은 더더욱 부적절하다.

내 글에 친구의 댓글이 올라왔다. "너의 종교적인 의견과 체험, 존중한다. 그러나 동성연애자들은 동성연애자로 태어났다. 그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남미인으로 태어난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닌 것 같이 말이다."

이에 나도 댓글을 올렸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성장기 때 경험한 부적절한 관계, 가르침, 그리고 사건이 결정적인 요소임을 검증하는 많은 연구자료가 있다."

하지만 그렇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나의 주장은 그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자녀가 학교에서 동성연애에 대해 필수교육을 받고, 동성연애자의 라이프스타일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강요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확신한다.

문제는 현재 90%의 학생이 공립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점이며, 그들 중 대다수가 사립학교를 선택할 수 없는 현실이란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공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을 거부하고 제거한 것 같이 원하지 않는 성교육, 즉 동성연애에 관한 교육을 거부하고 제거할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현재 가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성연애에 관한 교육 및 법안은 이미 몇년 전 메사츄세트 주와 뉴욕 주가 밟은 절차와 매우 흡사하다. 예를 들어 <왕과 왕(King and King)>이란 동성애를 다룬 책을 교사가 초등학교 2학년생에게 읽어준 것, 고등학교에서 동성애에 관한 책자(동성애자들의 생행위를 설명하고 그래픽을 보여주며, 근처에있는 게이바 리스트를 담은 책자)를 배포한 것(보스톤 브록라인 고등학교)이 가주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친구가 또 댓글을 달았다:

"그런 일은 극소수의 짓일 것이다. 웨스트보로 침례교회같은 광적인 집단이 기독교 전체를 상징하지 않는 것 같이 말이다. 1940, 50년대를 생각해 보라. 흑인과 백인이 같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만약 이것을 부정한다면... 페북 리스트에서 내 이름을 삭제해 달라."

나의 글은 다음과 같았다.

"극소수의 짓일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그 책자를 받아본 학생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학교 교장으로서는 난 아이들을 보호할 의무를 갖고 있다. 부모는 당연히 더 그러한 책임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그런 일이 벌

어지지 않을 것이라 보증이 있는가? 내가 너무 예민한 것인가? 법안으로 채택된 AB 1266(중전과 같이 성별로 스포츠팀이나 활동을 구별할 수 없으며, 학생 기록부에 적혀있는 성별에 상관없이 스포츠나 활동에 참여하고, 시설(탁커룸, 샤워실, 화장실 등)도 사용할 수 있다는 법안)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가? 이것이 열성 동성애 지지자들의 의제 (agenda)가 아닌가? 이 법안을 제시한 자는 잘 알려진 동성연애 주 하원의원이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 아닌가?

페북 친구리스트에서 빼달라는 것에 대한 나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등을 돌려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종전의 크리스천들은 이런 중대한 이슈를 접했을때 귀를 막고 정죄하며 그들의 범주안에 서만 활동했다. 나는 이런 틀에서 크리스천들이 벗어나야한다고 믿는다. 종교는 정치적 사회적 이슈든 우리는 서로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하며, 자신의 의견과 다른 입장을 귀를 기울여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대화가 긍정적이고 생산적이며 성숙하다고 믿는다."

이 마지막 포인트에서 서로 동의하며 우린 페북의 논쟁을 마쳤다. 그러나 이것이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페북에 댓글을 다는것이 IT 세대의 변증(apologetics)이라 하면 과언일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 대화는 우리 두 사람만의 의견교환이 아니었다. 중간에 끼어든 사람도 다수였고, 편을 든 사람도 많았다. 결국 수십명이 지켜보고 읽은 포스팅이 됐다. 이 친구와 철진한 다른 친구가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왔다. 사실 자기도 필자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친구 사이에 공방을 피하려고 지금까지 아무말 못 해왔다고.

믿는 자들이여, 이제 IT를 사용해 복음의 진리를 잘 전해보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말씀을 그저 교회 안에서만 사용하지 말자.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깊이 생각해보고 더 많이 준비하고, 더 진지히 대화하고, 더 말씀을 연구해서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그런 새 시대의 전도자가 되자!

하나님의 진리가 디지털 공간에도 널리 퍼지길 학수고대한다. 인터넷과 IT를 통해 공산주의의 벽을 넘어뜨려 보자. 컴퓨터 한 대로 몇 백만명에게 신선한 콘텐츠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보자.

Three-Level English Education <3단계 영어교육>

English (초급 영어)

>I guess so.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Do you like to drink coffee?
 커피 좋아하세요?

>Yes, I do.
 네, 좋아합니다.

>How many cups of coffee do you drink a day?
 하루에 몇 잔 드세요?

>I drink a cup of coffee in the morning.
 아침에 한 잔 마십니다.

>Do you put some sugar in your coffee?
 커피에 설탕을 넣어 드시나요?

>Yes, I put a couple of spoons of sugar.
 네, 설탕 두 스푼 정도 넣습니다.

>How many cups of water do you drink a day?
 물은 하루에 몇 잔 정도 마시나요?

>I drink 8 cups of water a day.
 하루에 보통 8컵 정도 마십니다.

>Is it good to drink water a lot for health?
 물을 많이 마시는 게 건강에 좋나요?

English (중급 영어)

Jesus answered, "Did you believe me just because I said that I saw you under the fig tree? You will see something even greater. I tell you for certain that you will see heaven open and God's angels going up and coming down on the Son of Man" (John 1: 50-51).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말한 것 때문에 네가 믿느냐? 너는 이보다 더 큰 일도 볼 것이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English (고급 영어)

Aurelius Augustine was born of

a pagan father and a Christian mother. He received a literacy education in his home city. He wrote in Latin, but knew very little in Greek. He taught Rhetoric at Carthage College. He was converted to Manichaeism, the heresy, and served for 10 years. His mother consistently prayed God for his return to Christianity.

오렐리우스 어거스틴은 이교도인(불신자) 아버지와 크리스천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 그는 자신이 태어난 도시에서 수준 높은 지식교육을 받았다. 라틴어로 글을 썼지만 헬라어는 잘 알지 못했다. 그는 칼타지대학에서 수사학을 가르쳤다.

그는 마니키즘(마니교: 페르시아 곧 사교에 전향하여 10년 동안이나 봉사했다. 그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그가 기독교로 돌아오도록 기도했다.

자료 제공

아메리칸침례대학 배호식 교수

한솔종합보험(주)

Hansol Property & Casulaty Insurance

[Hansol Life & Annuity Insurance]



생명보험과 연금플랜에 대한 모든 것

(A) 생명보험(Life Insurance)종류와 활용

(1) 종류

- * Low Cost Term Plants(Level& ROP)
- * 저축성생명보험
 - a) Guaranteed UL plans
 - b) Guaranteed Index UL plans

(2) 생명보험의 활용

- * Estate Planning & Retirement
- * Business Planning
- * Tax-Shelter Planning(Key man Ins)
- * Premium Financing, etc

30여개의 A+ 생명보험회사 취급

(B) 연금플랜의 종류와 상품

(1) 취급 범위

- * 은퇴계획 Planning 단기, 중기, 장기 Planing
- * Social Security Maximization Planning
- Restricted Application, File & Suspend, Combo

(2) 취급 종류

- * 사업주 주도의 Planning
 - a) 401(K), Simple, SEP, 403(b), 412(e), Roth 401(K), Solo 401(K)
 - b) Defined Benefit, Defined Contribution Planing
- * 개인 Planning
 - a) IRA, Roth IRA

(3) 취급 상품

- * Fixed Annuity - CD Type 저축
- * Immediate Annuity, 가입직후 평생수령
 - a) 저축목적 상품 - 5년, 7년, 10년, 12년, 14년
 - b) 연금수령목적상품
 - c) Guaranteed Lifetime Income(평생수령)
 - d) Bonus(4%, 6%, 10%) 4.5% compounding
 - f) Without Fees, With Fee
- * Index Annuity

“메디케어” 수혜자를 위한 혜택

- * 만 65세가 되셨습니까?
- * 메디케어 A,B만 가지고 계십니까?
- * 메디케어, 메디칼 동시에(Full Dual-Eligible Beneficiary)가지고 계십니까?
- * 이번에 파트B를 새로 받으신 분, 타주 혹은 다른 카운티에서 이사한 경우나
- * 직장보험에서 탈퇴한 경우가 있습니까?
- * 파트 A가 없거나 이번에 파트 A 를 새로 받으셨나요?
- * 메디케이드(Medi-Cal) 혜택이 이번에 Cost of Sharing(대략 \$699)으로 바뀌셨나요?
- * HMO 플랜에 가입되어 있으나, 당뇨, 심장질환 및 신장투석 등으로 본인 부담금이 많으세요?
- * 장애자로서 메디케이드(Medi-cal)혜택은 있지만 메디케어 혜택이 필요하세요?

20% 보충보험(Supplement)

본인이 원하는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

시니어 우대플랜(Advantage-Part C)

보험료없이 20%와 약이 커버(HMO, PPO)
Medicare에서 커버하지 않는 다른 Benefit도 제공합니다.

처방약보험(Part D)

복용중인 약이 다 커버되는 보험회사를 찾으드립니다.

처방약보험료가 부담 되십니까?

저소득기준이 맞으면 약값을 낮출 수 있습니다.



“EXTRA HELP”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상담문의 800.300.0703 / 213.487.4900

사업체 보험 (BUSINESS INSURANCE)

- 화재보험, 도난보험
- 초과액 보상보험(Commercial Umbrella)
- 기계보험(Boiler & Machinery)
- 고용관련 배상책임보험(EPL)
- 지진 홍수 보험
- 건설공사보험(Builder' s Risk)
- 배상책임보험(Commercial General Liability)
- 상업용 자동차 보험(Commercial Auto)
-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Product Liability)

종업원용 상해 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개인 자동차 보험(Auto Insurance)

개인 집 보험(Home Insurance)

취급보험회사 (Insurance carriers)



보험/은퇴/학자금/재정설계
Hansol 한솔종합보험(주)
 Since 1977

이라크 크루드족 선교의 길 떠나며 : 김정호 목사 부부

덤으로 얻은 제2의 인생 크루드인에 하나님의 말씀 배달한다

-이라크 하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로 손꼽힐 정도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다.

▷김정호 목사: 아버지가 구로동에 위치한 서울남교회 장로이셨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다. 그리고는 작년 3월 아버지 산소를 국가유공자 국립묘지로 이장하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문득 그런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 이제 남은 사역은 이곳(미국 버지니아 주)이 아니라 선교지에서 보내게 하소서'

이후 아내 김선희 사모와 함께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땅으로 떠나기로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작은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선교지로 떠날 계획이었다.

어느 나라로 가야할지 선교지 선택의 문제를 놓고 10여개월 기도해오다 시드니교회 손상웅 목사가님 크루드족에 대해 소개해 주셨다. 크루드족이 살고 있는 이라크, 이란, 시리아, 터키 4개국 중 가운데 어느 나라로 가야 할지 기도하는 가운데, 이왕이면 선교사님이 나가있지 않은 곳에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알아보니 이라크의 경우 아직 현지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못 나가있는 실정이다. 단기선교팀 3팀 정도만 나가있는 정도다. 현재 이라크 내 크루드족 인구는 약 4백만명이고, 이는 이라크 총인구의 20퍼센트에 해당한다. 크리스천은 1천명에 불과하다.

- 중동 지역은 선교 나가기에 매우 위험한 지역이라 들었다.

아무래도 위험하다. 그런데 다행히 이라크 크루드인들에게는 크루드 자치정부가 있어서 그나마 안전한 지역에 속한다. 놀라운 것은 2년 전 출간한 자서전 <스울의 뱃속>에 이어 <니느웨로 가는 길>을 쓰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라크 크루드족이 살고 있는 지역 안에 니느웨가 있더라. 참 신기한 일이다.

- 선교 가기로 결심하기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이끄심이 있었을 것 같다.

▷김 목사: 말하자면 좀 길다. 목사의 딸로 태어난 아내(3남 5녀 중



오는 10월 말 이라크 크루드족 선교의 길을 떠나는 김정호 목사와 김선희 사모.

일곱번째)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심이 깊었다. 모친이 일찍 소천하신 뒤로 아내가 사모 역할을 하면서 30일 금식도 하는 등 기도를 많이 했다.

▷김 사모: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셔서 한 것 뿐이다. 돌이켜보니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부어주셨다.

24살 되던 해, 어느 날 새벽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귓가에 들려왔다.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더라. 이에 어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 연거푸 세 번을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에 "하나님, 저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기에 의지합니다"고 대답했다. 하나님은 한참 있다가 "그렇다면 아무리 네게 어렵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어도 지고 가겠느냐"고 물으셨다.

무거운 십자가라고 하시니 눈물이 앞을 가리면서 '하나님은 왜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하는 생각이 스쳐감과 동시에 "하나님, 제 힘으로 못 하지만 당신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 수는 있겠나이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해 능력 있는 주의 종을 예비해 놓았다. 돌이 하나가 되어 세계 만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니라(롬8:28)"고 하시고 말씀을 마치셨다.

이 일이 있기 전에 교회에서 주일

학교 교사로 섬기면서 기도를 인도하는 중에 많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마다 속으로 "하나님, 참으로 귀한 은사를 주셨는데, 이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라고 계속 여쭙았던 것 같다. 그러면서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이 찬송을 부르며 눈물로 기도드린 적이 있다.

그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풀림을 하셨던 것 같다. 그리고 나서 가족 모두 미국으로 이민을 왔고, 당시 유학생이었던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다.

▷김 목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됐는데, 당시 나는 아직 주의 종은 아니었다. 학업을 마친 뒤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버지니아로 직장이 옮겨가면서 버지니아 워싱턴중앙장로교회를 섬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찾아온 질병으로 인해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다. 2년 전에 출간한 책 <스울의 뱃속>에도 나와있듯, 1년에 걸친 신장이식 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주의 종이 되기로 결심하고 신학교에 진학했다. 그리고 교역학 석사과정 이수 후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했다. 그간 살아오던 세속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이 바뀌었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눈

뜬 후 줄곧 목회를 해왔으니, 그걸로 끝인 줄 알았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다.

첫 번째 신장이식 수술 뒤에 수차례의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며 극한 고난을 경험했고, 이때 깊고 어두운 '스울(죽음)의 뱃속' 체험을 하게 됐다. 결국 15년간의 오랜 투병생활 끝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병이 회복됐다.

- 투병생활 중 본인도 힘들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사모님의 마음이 더욱 힘들었을 것 같다.

▷김 사모: 예전에 기도 중 '십자가 아무리 무거워도 질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시던 게 생각났다. '하나님이 결국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고통 가운데 깨닫게 해주셨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기도하게끔 날 이끌어 주셨고 기도 중에 항상 환상과 방언 대언으로 알려주셨기에 그 힘으로 견뎌낼 수 있었다.

첫 번째 신장이식 후 8년만에 다시 몸이 망가져서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이 세상에 많은 주의 종이 있지만 내 마음을 품고 고아와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고 목회하는 자는 드물다. 내 마음을 품고 목회하는 이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기적같이 낫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기도의 응답이었다.

▷김 목사: 지금 돌아보면, 그렇게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는 시간이 있었기에 신앙이 더욱 단련됐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부활의 소망과 희망의 꽃을 피우게 된 것 같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다(시 118:17)"

아내는 결혼 전부터 사모가 되는 것을 놓고 기도해왔지만, 나는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 없이 결혼했다. 그러나 오랜 시련과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나 목사가 됐고, 또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번엔 선교지에 나가게 됐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하나님이 가라 하신 땅, 이라크로 가서 크루드족을 위해 헌신하고 사역하며 살아갈 계획이다.

오는 10월 26일 토요일 오후 6시 버지니아주 센터빌 초대교회에서 파송예배 드리고 바로 일주일 내에 떠난다. 아내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 정확히 30년만에 이뤄주신 것이다.

- 아무리 선교지이지만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인데 두렵지는 않나.

▷김 목사: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간 모든 환란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 보셨다고 하시더라. 이 테스트에 패스했으니 너희는 이제 "레디 고(Ready Go)! 이제 가라!"고 하시면서 "어딜 가든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곳에 가서 너희가 할 일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순종해야겠다고 생각하니 두려운 마음이 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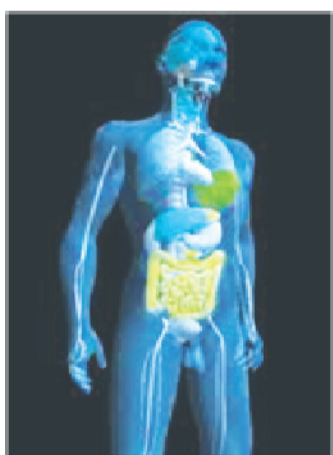
▷김 사모: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니 마음이 평안하다. 언제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하셨다.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중 밤중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곳은 위험하니 떠나라"고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길을 그분이 하나하나 지시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전혀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때와 모든 계획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선교협력 문의: (703) 828-5556 / (213) 739-0403 ▷이메일: jeongkim0211@gmail.com(김정호 목사)

정하나 기자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도입!



다나병원의 3D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투입이나 통증없이 신속, 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 등 전신의 건강상태뿐 아니라 위험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일찌기 경험하지 못한 전신기능의 검사를 합니다.

검사 결과는 검사즉시 코드화한 3D 입체 칼라 영상을 통해 이상이 있는 부위와 문제를 수치와 영상으로 보여주며, 이에따른 최적인 건강관리와 최상의 비화학적 치료를 안내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치료 후의 효과도 재검사를 통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10분 미만의 초스피드 검사
- ✓ 즉석에서 결과 확인과 상담
- ✓ 최상의 치료관리법 안내
- ✓ 초 저렴 검사 및 상담비

유전자 생약치료 프로그램 (gene nutrition herbal therapy)

노화, 콜레스테롤, 혈관, 항산화,비만, 당뇨병, 고혈압, 치매, 중풍, 관절염, 파킨슨, 유방암 전립선암, 직장암, 식도암, 난소암등에 관련된 유전자외에 2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해 상담을 하고, BAM(bio active molecule;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특별무술수기법에 의한 완고한 통증(요통,오십견, 무릎관절통, 좌골신경통등)의 치료도 하고있습니다.

다나병원 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태바 선교후원회 부설, 다나 병원 621 S.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T.213.487.0691

*다나병원의 수익금은 전액 선교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교단법 위반하며 동성결혼 주례, 목사 면직도 불사

현재 동성결혼을 교단법상으로 금지하고 있는 연합감리교(UMC)에서 목회자들의 탈선 현상이 공개적으로 잇따르고 있다. 동성결혼이 세상법으로 금지되던 시기에는 교단도 적극적으로 제약을 가했으나 현재는 교단 내에 친동성애 그룹이 생겨날 정도로 그 힘이 막강해졌다.

뉴욕에서 동성결혼이 불법이던 2002년 스티브 헤이스 목사는 자신의 딸의 동성결혼을 주례했다. 2011년 동성결혼이 합법이 된 이후 그는 6건의 주례를 더 했다. 그 중 5건은 자신이 시무하는 교회에서 열린 결혼식이었다. 당시에도 교단법은 동성결혼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세상법이 금지하던 시기에도 동성결혼을 주례하던 헤이스 목사가 세상법이 이를 허가한 이상, 더 이상 교단법의 눈치를 보지 않은 것은 당연했다.

지난 5월, 이 때는 뉴욕 주에서는 동성결혼이 합법이었지만 연방법으로는 금지돼 있던 시기였다. 그는 자신이 속한 연회의 감독에게 자신은 계속 동성결혼을 주례할 계획이라고 의사를 밝혔고 연회 측은 이 목회자의 교단법 위반에 대해 고발이 접수됐다. 오는 9월 20일 연회 감독은 접수된 이 고발을 기각시킬 것인지 정식으로 진행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고발이 정식으로 진행된다면 동성결혼 주례는 교단법상 100% 불법이기에 연합감리교 목회자로서 정회원 자격을 잃게 된다. 이것은 사실상 목사 면직이며 정년 보장, 의료보험 혜택 등 대다수의 특권을 잃게 됨을 의미한다.

이런 강력한 징벌에도 불구하고 헤이스

목사처럼 교회로부터 이 문제로 고발당한 목회자는 교단 내에서 최소 3명 이상이다. 그 중 한 명은 자신이 레즈비언이기도 하다.

교단신학교인 드류신학교의 학장이었으며 예일대학교 신학부의 교수이기도 했던 토마스 오글리트리 목사도 2012년 10월 자신의 아들의 동성결혼식을 주례한 혐의로 이같은 고발을 당했다.

현재 연합감리교 내에는 화해사역네트워크란 독립적 단체가 존재하며 이 단체는 교단이 동성애를 전격 수용하도록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여기에는 무려 569개 교회와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1500명의 목회자들이 동성애자들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작성하기도 했다.

현재 연합감리교는 교단법으로 “동성애는 기독교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 또한 성적인 경험이 있는 동성애자는 임명될 수 없다, 연합감리교단은 동성간 연합을 수용할 수 없으며,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의 결합으로 정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단 내의 친동성애 그룹은 지속적으로 이 명문화 된 내용을 변화시키려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미국 내 회원이 아닌 아프리카 등 미국의 보수적인 회원들의 반대 덕분이었던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친동성애 그룹에 속한 목회자들은 “보다 많은 목회자들이 공개적으로 지지해 오고 있다. 우리는 교단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동성애와 관련된 일부 문장을 제외한다면 교단법을 총체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한다.

김영신 기자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당국의 감시를 피해 휴지에 성경을 옮겨 적은 모습. <사진=모퉁이들선교회>

» 1면으로부터 기사 받음

서울USA는 활동에 필요한 자료집을 배부하고 있으며, 공식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전 세계 어디에서든 이를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참여자들은 기도 운동 기간에 한해서

북한 교인들의 예배와 관련한 비디오 자료도 이용할 수 있다.

이 단체는 “그들에게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의 신앙을 따라서 체험해 보는 것이다”며 이 같은 활동의 의의를 설명했다.

서울USA는 기도 운동 기간 중요한 것은 참여자들이 소규모 모임을 개인적 공간인 가정은 물론 학교, 직장, 식당, 공원 등 여러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공공 장소에서도 갖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는 북한 교인들이 자신들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공공 장소에서 신앙의 표현을 했을 경우에도 감금이나 처형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간접으로 체험함으로써, 그들이 겪고 있는 핍박에 동참하고 이를 통한 신앙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다. 한편 폴리 목사는 미국 카리스마뉴스를 통해서 “이번 운동의 목적은 전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교인들의 겸손하고 일상적인 예배로 이뤄져야 한다”며, 따라서 “매 가문, 고성, 정치적 메시지, 인력 동원” 등의 요소들을 배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손현정 기자

남가주살롬교회 입당예배 드리고 ‘새출발’



남가주살롬교회 새성전 전경.

남가주살롬교회(김준식 목사)가 지난해 7월 창립예배를 드린 이래 10여년 만에 새성전(2005 S, Vermont ave. Torrance)을 마련하고 입당예배를 22일(일) 오후 4시에 드렸다.

인사말을 전한 김준식 담임목사는 “살롬교회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선하신심으로 새성전을 허락하시고 인자하신으로 인도해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며 “저희 교회가 앞으로도 사명을 감당하며 쓰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이날 예배는 인도 김준식 목사, 영어 설교 Joe Hong 목사, 찬양 살롬연합성가대, 설교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 축사 안동성 목사(토렌스제일장로교회 초대목사), 민중기 목사(충현선교회),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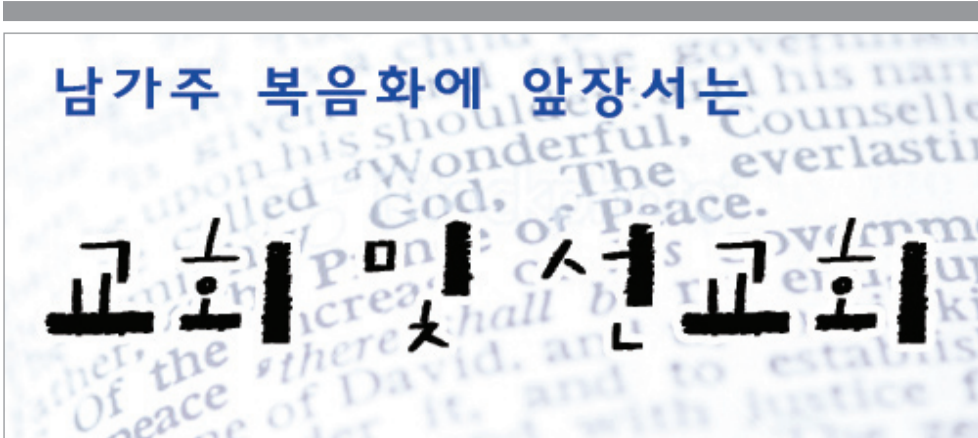
김준식 목사

축경과보고 공영웅 장로, 축도 이무철 목사(살롬교회) 순으로 진행됐다.

“다윗 왕국의 시작”(사무엘상 22:1-2)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한 고승희 목사는 “은혜란 값없이 받은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진정한 의미는 받을 수 없는 자가 받는 것이라 할 수 있다”며 “아들람 공동체의 400인처럼 서로 긍휼히 여기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남가주살롬교회의 새성전은 이전에 IT업체가 쓰던 건물을 교회 용도로 리모델링해 마련됐다.

토마스 맹 기자



LA 지역

한현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20

갈릴리선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om

강진웅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말-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일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갈보리민음교회
백천 세계 비전!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엘리아 김 담임목사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말-토)
저녁 오후 7:30 (화,목,금)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203 LA 90006
T. (213) 272-6031

박현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4부예배 오후 1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1925 Wilshire Blvd, LA, T. (213) 383-2600 (213) 413-1600
임시예배처소 3119 W. 6th, LA, CA 90020 laopendoor.org

진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말-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저녁 8:00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김광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정우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 오전 6:30 (말-금)
오전 10:30(수) 오전 6:30(토)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샤하는 은혜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os Angeles, CA 90010
T. (213) 598-0191

김요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2: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성경공부 주일오전 11:00

남가주리더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

서건오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주일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청년부-주일 오후 1: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새로남교회
말씀과성령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교회
3407 W. 6th St 103 LA, CA 90020
T. (213) 384-0305 / www.gwclanet

김성광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후 2:00

성재복음선교회
은 성도가 성령과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에 거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15 LA, CA
T. (213) 327-9200, T. (213) 598-9932

최운형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주일 EM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세계선교회
하나님의교회, 사랑의교회, 세상속의교회
927 S. Menlo Ave. LA, CA 90006
T. (213) 388-1927, 388-2105

박승부 장로 17/27/37, 4기 수료생 배움, 현재 3기 수료생 양성 중
-수기치료를료선교사 양성
-약품이나기구없이 온산으로 각종질병치료하는 의술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
1543 Olympic blvd #505 LA, CA 90015
OC부활교회 (아리랑마켓 뒤) T. (213) 381-7273 / F. (213) 605-2928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형(정부 배넬전 전반)
음식 보조 푸로그램(Food Stamp), 메디칼, 임신부 메디칼

요한 선교회
gkal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김세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정장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50 새벽기도회 (말-금) 오전 5:25
3부예배 오후 12:00 토요일새벽연합예배 오전 6:20
4부예배 오후 2:22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17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T. (213) 387-1700 / F. (213) 381-2201

류종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말-금)
오전 7:30(토)

임마누엘선교회
초대교회의가정요리, 성경학교노년노, 만민대상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신승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말-토)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대표 김갑선 목사 부서 : Naturo pathy Clinic(말-금)
전문의의 213) 505-7067

지구촌 농업선교회
3000 W. 6th St. #309 LA CA 90020
T. (213) 505-7067

이명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청운교회
신교에 흐름, 소, 친,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간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민중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충현선교회
콜리서(Callng), 고치고(Healing), 기르메(Maturing), 왓선(Antroring)
5005 Eder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강지원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30(말-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성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김기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말-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혼이탈가족이며, 이민가정에서 성령의 은사를 나누는 교회
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12
T. (213) 975-1111 / www.LASarang.com

교회입니다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교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박해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9:30(EM) 오전 6:00 (토)
3부 오전 11:30

남가주헬로쉽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주일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주일학교 오전 11시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성경공부 오후 1:30

김성일 담임목사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4부예배 오후 12:5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대학선전부예배 오후 12:5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sunhanchurch.com
1816 S.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965-3443 / F. (626)965-0404

1부예배 오전 7:45 중교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청년예배 오후 1:45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11:45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백성현 목사, **백성영** 목사
베니나 및 성령선 사용
예언문의 훈련

주의사랑 선교 수양관
아버지의 마음과 신부의 영성 교육센터
11373 Oasis Rd. Pinon Hills, CA 92372
T. (714)932-8993, (760)868-8583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창스년부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년 유아부 오전 11:00

전길성 담임목사

크로스로드교회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되어
영광구원과 세계선교 비전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
2600 Grand Avenue, Chino Hills, CA 91709
T. (909) 627-0201 http://go2cross.org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오후 8:00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 E. Romir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사우스 베이 지역

정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예배 오후 2:00 중교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나눔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돌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rschurch.com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45/2부 11:45
2부예배 오전 9:45 중/고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4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45

대흥장로교회
망글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신통(통)하고 인통(통)하며 물통(통)하여 민사형통합시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이중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김바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장어우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할-토 오전 5:30am
4부예배 오후 1:15(EM장년) 수요일예배 오후 8:00
5부예배 오후 3:00(EM장년)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 성경공부/세교부만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오전 7:00 (토)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할-금 오전 5:30
점심이 예배 오후 2:00 토 오전 6:00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최상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후 1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아동부예배 오전 11:5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학생회예배 오후 12:00

벤추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리보게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EM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스페인예배 오전 10:00 오후 6:30 (토)
한국어 오전 10시 (힐로우십) 금요일예배 오후 8:00
오후 12:00 (분당)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한 교회 교인 중 50%가 한 가족이라면?

툼 레이너 박사, 교회 내 8가지 ‘영향력 있는 존재’ 분류

목회자와 평신도 간의 갈등. 교회에 반드시 존재하지만 드러내어 말하기 꺼릴 수밖에 없는 주제다. 그러나 이런 갈등을 잘 해결·해소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교회의 성장과 성숙에 좋은 밑거름이 되기도 한다. 그 첫 단계는 뭐니뭐니 해도 교회에 어떤 종류의 ‘파워 그룹’이 있느냐를 파악하는 것이 아닐까?



툼 레이너 박사

지 않으며, 교회의 발전에 사용하고 싶어 한다.

네번째는 공식적인 조직이다.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장로회나 안수집사회, 권사회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교회성장 전문가이자 목회 컨설턴트,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대표인 톼 레이너 박사가 이에 대한 칼럼을 발표했다. 그는 “교회의 8가지 권력 집단(Power Group)”이란 글에서 “권력 집단이란 단어는 영혼과 복음의 은혜와는 반대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분명 실제로 교회 내에 존재한다”고 명시한 후 “권력 집단이란 단어보다 영향력 있는 존재(influencer)라고 하면 좀 더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교회 내에 존재하는, 영향력을 가진 존재 중 첫번째는 가족이다. 미국 내에 수천 개의 교회가 한 가족에 의해 주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 교인 수의 30% 이상을 한 가족과 그 친척들이 차지할 경우, 공동의회를 주도하는 것은 사실 이 가족들이며, 그들의 입김은 실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다.

레이너 박사는 “내가 섬겼던 한 교회는 집사의 50% 이상이 같은 성(last name)을 갖고 있었다”며 “교회가 가족 구성원에 의해 설립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자 할 때, 하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두번째 존재는 일을 중심으로 한 투사(warrior)들이다. 그들은 교회 내 리더십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일을 해결하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다. 예를 들면, 담임목사가 공석이 됐을 때 공석·비공석적 자리에서 후임 목회자 청빙에 입김을 불어넣는 존재들이다. 이들은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해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세번째 존재는 너그러운 독재자다. 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 내에서 폭넓은 지지를 얻으며 여론을 주도한다. 이들은 대체로 이런 힘을 자신들을 위해 사용하길 원하

다섯번째는 교회의 재정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교회 내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집행하는 부서의 사람들은, 그 힘을 바탕으로 교회 사역의 다방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여섯번째는 전통수호론자들이다. 이들은 교회의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는다. 이 사람들은 분명한 리더와 다수의 추종자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레이너 박사는 “한 목회자는 주일예배 시간을 오전 10시 55분에서 11시로 바꾸자고 했다가 어려움을 당했다. 이 사람들의 목표는 ‘우리가 늘 해 오던 것을 망치지 말라’이다”라고 설명했다.

일곱번째는 사역 민병대다. 교회의 전체적인 목적에는 동의하지만 자율성을 갖고 자기 사역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자신들이 감당하고 있는 사역에 변화가 주어질 경우, 강력하게 반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교회에서 주차 봉사를 맡은 사람들이 사역 민병대의 영향을 갖고 있다면, 교회의 방향과 일치할 때는 가장 강력한 지원군이 되지만 교회에서 이 사역에 변화를 주려 하면 반군이 되는 수도 있다.

마지막은 네트워크 시스템이다. 교회 안에는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특별한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많은 사람을 만나 몰밀 작업을 펼치며, 친분을 이용해 교회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

레이너 박사는 “이런 존재들은 나쁜 것으로 인식되기 쉽지만 교회 정치에 반드시 필요하며, 또 교회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김준형 기자

성공적인 목회의 핵심 “사역 아닌 예수께 집중”

폴 트립 박사가 전하는, 성공적인 목회를 위한 지침

폴 트립 박사가 목회자의 영적 성숙 기준과 사역 성공 지침을 제시했다.

그는 22일 ‘성공하는 목사가 되기 위한 방법’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목회자의 사역은 결코 경험, 지식, 기술 등의 요소가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 상태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면서 “영적인 성숙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것이고, 그 결과로 지혜롭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폴 트립 박사는 “목회자들은 종종 삶, 겸손, 예배, 예수 그리스도와 교감 등으로 씨름한다. 모든 사역에 대한 지식과 기술은 있지만, 살아계시고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와 교제로부터는 떨어져 나온 것 같아 보인다”면서 “이러한 경우에 사역이 비인간화되고, 목회자의 마음이 제자리에 있지 않을 때 사역에 대한 지식과 기술은 오히려 목회자를 위해 방해된다”고 지적했다.

목회 사역이 신학적·해석적 정의, 교회적 책임, 제도의 개선, 다음 설교에 대한 준비, 다음 회에 대한 주제, 리더십 훈련에 필요한 요소들을 채우는 데 집중된다는 것이다. 트립 박사는 “이러한 요소들이 그것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역에 필수적이지만, 이러한 요소들만 그쳐서는 안 된다”면서 사랑의 동기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목회자는 반드시 그의 구속자(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그가 생각하고, 바라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동기로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보장받은 힘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목회자의 마음은 그리스도와와의 교제로 인해 매일 부드러워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사랑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베풀고 섬기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와 그의 인제, 그의 약속, 그의 소망에 대한 묵상은 언제나 그의 사역을 어떻게 이뤄갈 것인가에 대한 묵상을 압도해야 한다”고 했다.

트립 박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만이, 목회자의 사역을 방해하는 모든 다른 사람으로부터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오직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그를 모든



폴 트립 박사

매력적인 사역의 이상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그를 스스로의 영광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만한 자를 돌이키실 수 있으며, 고난받는 구원자에 대한 깊은 감사는 목회자가 사역에서 고난을 감당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한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죄 앞에 진실되게 부서질 때, 목회자의 말을 듣지 않는 교만한 교인들에게도 은혜를 전할 수 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만이 사역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는 것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립 박사는 또한 “우리는 사역의 준비성과 영적인 성숙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매우 신중해야 한다. 잘 교육되고 잘 훈련된 신학교 졸업이 사역의 준비라고 생각하거나, 사역의 지식과 분주함, 기술 등을 개인적인 사역의 성숙도로 생각한다면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성숙은 매우 수직적인 것으로서 광범위하고 다양한 수평적인 표현을 가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숙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것이고, 그 결과로 지혜롭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성숙도는 다른 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드러난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은혜로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인내와 용서에 대한 감사는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을 참고 용서할 수 있도록 한다”면서 “여러분이 복음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면 이것은 다른 이들도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열정을 준다. 이것이 바로 참된 사역을 성공으로 만드는 토양”이라면서 글을 마무리했다.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헬레니즘과 유다이즘의 의미(3)

Hellenism과 Judaism에 대한 오해들

1) 헬레니즘은 개인주의적이고 유다이즘은 공동체적인가?



서승원 목사

또 하나의 경우는 2002년 여름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웨퍼드 신학교에서 주최한 특강에 강사로 초빙된 제임스 샌더스 박사이다. 그는 “알렉산더 대왕이 우리 모두에게 행한 것”(What Alexander the Great Did to Us All)이란 제목의 강연에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전파된 헬레니즘의 특징을 개인주의(individualism)이라고 규정했다. 그에 의하면 성경은 인간의 가치와 책임에 있어서 집단주의적 견해, 다시 말해 가부장적 가족과 씨족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이해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치관은 개인의 가치와 책임을 중시하는 헬레니즘과 대치하는 것이며, 서로 상치되는 이 두 인간관의 만남과 충돌 속에서 기독교가 탄생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샌더스 교수는 그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속에 나타

난 개인주의적인 경향을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런데 그는 헬레니즘을 개인주의로 규정함에 있어서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다. 다만 그는 한 예로 신구약을 막론하고 성경은 근본적으로 공동체문학(community literature)으로서 대부분의 경우에 그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채로 전해왔는데, 그 저자들에 관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사람들이 희랍인들이고, 따라서 이들에 저자들의 이름이 붙여진 것은 헬레니즘의 영향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경향은 신약에서도 유사하다는 것이다. 그 한 예로 그는 누가복음을 들고 있다. 그에 의하면 2세가 상당히 경과할 때까지 저자들이 사본에 적혀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라고 알려지게 된 것은 헬레니즘의 영향이라는 것이다.

<계속>

[새벽강단] 기드온의 세가지 실수

본문: 사사기 8장 22~35절

기드온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는 미디안의 13만 5000명을 향아리와 횃불과 나팔로 싸워서 이깁니다.



김신 목사
주향교회

그러나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단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능력과 지혜로 미디안을 쳐서 멸하여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양모로는 기드온과 기드온의 아들과 손자가 자신들을 계속하여 다스려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기드온은 23 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면서도 오늘 말씀에는 세가지 잘못을 행하였던 것을 봅니다.

첫째, 기드온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거두어들이 전리품 때문에 사람들이 탐심을 품게 하였습니.

24절 이하에 보면,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미디안으로부터 거두어들이 전리품을 달라고 합니다.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인 그두라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금귀고리를 장식으로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인 미디안 사람들의 금귀고리를 모으고, 그리고 장식품과 패물과 자색 의복과 그리고 낙타의 목에 둘러뿔 사슬을 모았습니다. 26절에는 금의 무게가 1,700세겔 이라고 하였는데, 1,700 세겔은 Kg으로 계산하면 약 21.38Kg이 됩니다. 현재 시세로 금은 미국 달러로 1Kg에 약 5만불 정도가 되니, 그 금액은 약 백만불 가량이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처럼 엄청난 가치의 금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하면,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Ephod)”은 본래 대제사장의 의복으로, 앞으로는 가슴을, 뒤로는 등을 덮었던 조끼 모양의 옷도리였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할 때에 이 옷을 입고 우림과 둠뎨로 판결을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금으로 이 에봇 형상을 만들어 자기 성읍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소지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 에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에 있는 성막의 제사에 집중하지 않고, 오브라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결국 이스라엘은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점차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게되었습니다. 27 절에는 “은 이스라엘이 그것을 율만하게 위하므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울무가 되니라”고 하였습니 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제물을 자신의 뜻대로 설정하고 사용하여서 사람들이 탐심을 품게 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섬김, 우리의 봉

사, 우리의 감사, 우리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주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탐심을 품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도록 만들어서도 안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의 자리에서, 우리의 이웃이 우상에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늘 살필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 기드온이 또한 잘못 처신 한 것 중에 하나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하였다는데 있습니다.

29절 이하에는 기드온이 많은 아내를 두었는데, 아들의 수가 칠십 명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겔에 있는 부인이 낳은 아들도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아비멜렉입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아버지 기드온이 죽은 후에, 자기 형제 칠십 명을 모두 죽이고, 또 세세 땅대에 있는 사람 천명을 죽였습니다. 이 내용은 보면, 기드온은 자녀들이 그냥 태어나고 죽는 인생으로 양육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는 교회 학교의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믿음의 후진들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의 자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영적인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신앙인 되도록 잘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드온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하였던 실수를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양육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도록 양육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자녀로 자라나도록 힘쓸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3) 기드온은 또한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삶이 되어야 했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33절에는 “기드온이 죽으매 이스라엘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34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고서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드온이 하였던 같은 실수를 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일마다, 탐심은 멀리하게 하고,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만드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에 쓰임 받는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O.C./얼바인 지역

이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2:45 수요일예배 오후 7:00

가나안장로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교회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T.(562) 866-0980/5027 / cana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7:20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00 한아리교회예배 오후 2:00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영 유아부 오전 11:00 유 초등부 오전 11:0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교회
모이는교회 흠뻑지는교회
1200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TEL: 562-691-0691. FAX: 562-691-0698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손병렬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505 Yorba Linda Bl.,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박용덕 담임목사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 주일 영아예배 오전 10:00 3부 주일예배 오후 2:30

허귀임 담임목사
노르워크 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el: 562-802-4959, Cell: 714-308-7038
E-mail: usa8291@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45 EYM 영아예배 오후 12:45 금요일예배 오후 7:30

김민재 담임목사
예진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955 W Imperial Hwy Brea, CA 92821 ECCU Auditorium (Worship Center) T. (714) 788-3677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외 사무실)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9:3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 92802
T. (714) 999-9900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손인식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오후 12:30분 중고등부 오후 3시 청년부 오후 3시

방익수 담임목사
사랑의방주교회
믿음을 믿고 믿음대로 살고 믿음으로 장래하여 공동체를 살리는 교회
13955 Yale Ave, Irvine, CA 92620
T. (949) 654-019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신원규 담임목사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만큼 우리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살려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1부예배 오전 7:00 (분당) 2부예배 오전 10:00 (분당) 3부예배 오전 12:30 (FC채플)

세리토스장로교회
11841 E. 178th St., Artesia, CA 90701 (분당)
T. 562-677-7777, F. 562-677-7778 / ilovepc.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

한중수 담임목사
얼바인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F. (949) 857-9242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최상준 담임목사
얼바인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 769-9628

주일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2:30 3부예배 오전 1:30

김삼도 목사
얼바인 할렐루야교회
15520 Rockfield Blvd, #F Irvine, CA 92618
T. (949) 514-4346 F.(949) 305-3951

주일예배: 1부 오전 6:00 2부 오전 7:30 (매일 S,D,F, Power minister)

지사론 담임목사
열방사랑선교센터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열매를 온전하게 영혼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과, 생애와 사랑을 감동시키는 주님의 부르심을 알고 인도하는 선교센터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 (714) 488-8291, (714) 644-1697

주일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30

우대년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T.(213) 291-5901 / (714) 833-2568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전 1:00 5부예배 오전 3:00 6부예배 오전 6:00

임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 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09:30 월요일예배 오후 7:30 화요일예배 오후 7:30

목회담당 앤드류 김 목사
신교담당 안근성 목사
작은자 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교회
1681 W Broadway Anaheim, CA 92802
Tel: 714-635-6402,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결혼교실, 시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기독교일보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감을 건너 세계로”, “사랑으로 세상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섬김의 사람들이 되자”
www.samcare.org

박세록 대표
SAM CARE INTERNATIONAL
1309W. Valencia Dr., Unit #A, Fullerton, CA 92833
T. (213) 447-8169 / F. (213) 381-1506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임주자화제\$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 저녁 제공 케미 tv 초고속 인터넷 냉방, 세탁, 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 (3가+옥스퍼드)

T. 213.327.4710

31년 전통의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확장 이전 기념 세일!

100불 이상 구입시마다 **미네랄 회색 바다 소금 1파운드 (16온스-40불상당)** **무료**

확장기념으로 특별한 상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구연산이나 소금을 100불이상 구입시 마다 **Sea of Cortez 무공해 천연 미네랄 회색 바다소금을 1파운드(16온스 - 시판가 40불)**를 증정하며, 200불 이상 구매 고객분들께는 **산삼 한 뿌리도 증정합니다.**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HQ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알파2병 + 오리지널6병 = 8병 or 오리지널 8병 **프로모션 A \$280 \$100**

알파3병 + 오리지널4병 = 7병 **프로모션 B \$270 \$100**

알파5병 + 오리지널1병 = 6병 **프로모션 C \$280 \$100**



한 병은 2-3개월분 / 7병은 1년 6개월분

Kosher Approved Organic / 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성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불 보장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추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빈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호르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약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약알칼리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쓰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 ★ 늘 피곤하던 몸이 가벼워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뚝뚝 떨어져 당약을 조절할.
- ★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낫게했다.
-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다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 ★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로니 나옴.
- ★ 비염,콧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로면서 나아졌다.
-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 요리할 때 식초 대신에 사용하니가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 올
-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 나무를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로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 허리통증, 어깨결림이 구연산 10일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 만성 아토피와 간암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펴졌음.
-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름 후 증상이 사라짐.
-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행구면 농약 끝.
-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낮고 회복.
-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이부영박사는 왜?

의사들의 검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으로 내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을까?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알 리가 없고 안다고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려고 처방해 준다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간판을 다 뜯어내려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망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야 하며 욕을 먹는 걸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가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막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니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은 건강을 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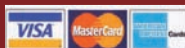
이부영박사 현, 서울대학교 의대 명예교수, 대한의학회에서 주는 분수의학상을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상을 받음 1966년에 스위스 취리히 융연구소 수료 융학파 분석가 자격 취득 *** 위 이부영박사 내용은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입니다.



HQ Health, Inc. / HQ 산삼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833 S. Western Ave. #1 Los Angeles, CA 90005



월-금: 10am-7pm, 토:10am-5pm

Life



[인터뷰] '가족 중심의 선교하는 교회' 애틀랜타 그레이스커뮤니티처치 빌리 박, 에디 림 목사

30, 40대 영어권 가정들은 어디로?

흩어진 세대 찾아 나선다

두 명의 1.5세 한인 목사들이 개척한 애틀랜타 그레이스커뮤니티 처치가 최근 예배장소를 찾고 '흩어진 세대들'을 찾아 나서고 있다.

빌리 박 목사와 에디 림 목사가 그 주인공으로 두 목회자는 각각 한인 교회에서 오랫동안 청소년, 청년, 영어권 장년 사역을 담당해왔다. 지난 6월 초 빌리 박 목사의 가정에서 개척을 시작한 그레이스커뮤니티 처치는 현재 30여명의 성도들의 모이고 있으며, 지난 주일부터 인근 초등학교 건물을 빌려 예배를 드리고 있다.

"흩어진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심령을 가진 제자들의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한다(Our mission is to gather scattered people into a church community of Kingdom-minded disciples)"는 목적으로 시작한 그레이스커뮤니티 처치 빌리 박 목사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가족 중심의 예배를 통해 성숙한 1.5세, 2세 신앙인들을 길러내고 싶다"고 밝혔다.

1세 영어권 사역자로 다양한 그룹을 이끌어온 빌리 박 목사는 "훌륭한 이민 교회라도 영어권 장년들이 성장하는 데는 한계를 느꼈다"고 했다.

40대 후반인 박 목사는 자신의 경우를 들어 설명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 중 일부는 목회자가 됐지만, 한인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적을 뿐 아니라 나머지 친구들은 아예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다니더라도 미국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부모님을 따라 한인 교회에 다니면서 유년부와 청소년 시절에는 자의든 타의든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대학에 가면서 방황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들의 자리가 있어 교회를 떠나지는 않는다.

문제는 결혼하면서부터 생긴다. 결혼은 한국인이지만 가치관이나 생각은 미국인이기 때문에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면 자녀를 주일학교에 맡기는 일부터, 교회 봉사나 사역까지 갈등이 생긴다. 가장 큰 어려움은 교회에서 영어권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어린 사람들'이라는 인식이다.

실제 이들은 어릴 때부터 대부분 섬김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신앙적인 성숙이나 헌신이 약하고, 교회에서도 영어권은 상대적으로 재직이나 리더로 세우지 않는다. 이들이 설 자리가 없는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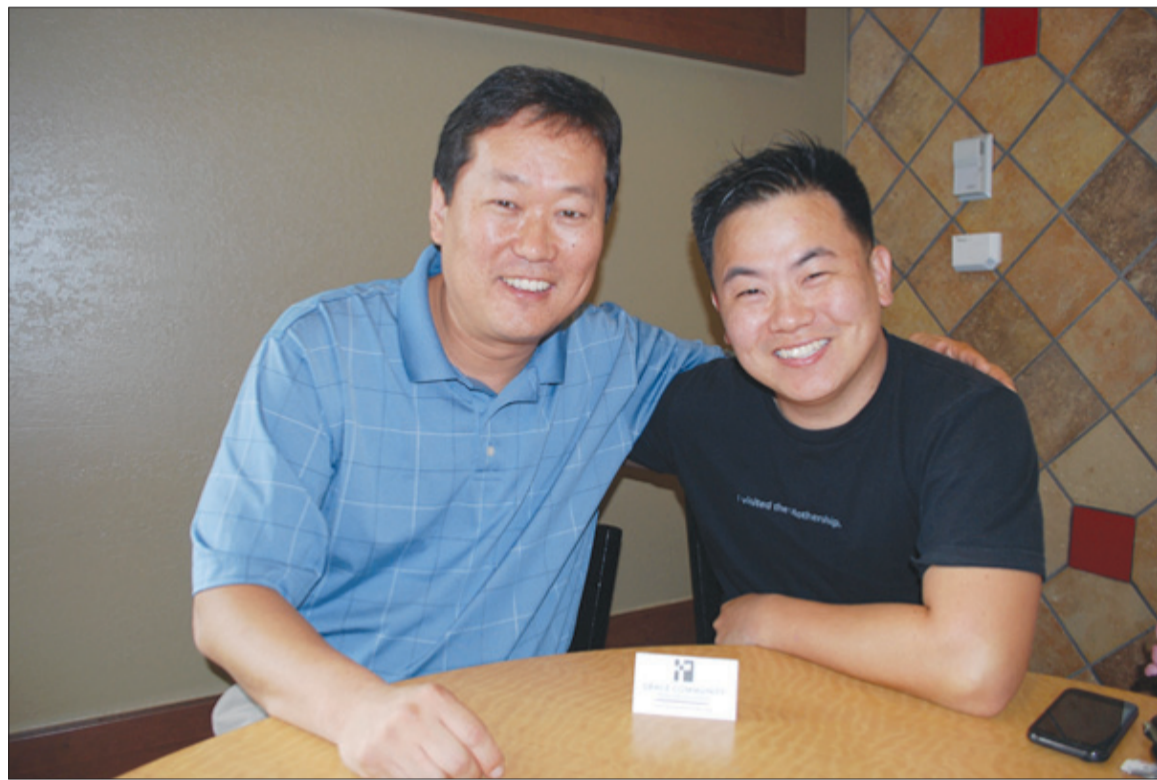
에디 림 목사 역시 "영어권 사역을 하면서 청년시절이나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가 없으면 주일학교 교사 등으로 열심히 섬기던 이들도 자녀가 생기면 갈등과 고민을 하게 된다. 결국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보면서 '가정을 이룬 영어권'들을 위한 교회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고 보충했다.

그레이스커뮤니티 처치는 '가족 중심의 교회'인 동시에 '선교하는 교회'다.

현재 오전 10시에는 어린이와 청소년, 어른들을 위한 주일학교를 갖고 있고, 곧바로 11시에는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주일예배를 드린다. 예배시간에 끝까지 집중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가 있는 가정은 뒤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다. 주보를 열면 왼쪽에는 일반적인 예배 순서가 나오고, 중요 내용은 메모할 수 있도록 했다. 오른쪽에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설교를 적거나 중요 단어를 적을 수 있도록 했다. 가장 아래 쪽에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놨다.

빌리 박 목사는 예배 중 아이들이 울거나 간혹 지루해 하기도 하지만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의 집중력이나 이해력이 뛰어나다고 말했다.

청소년들 중 간혹 조는 경우도 있는데, 매주 일부터 그러는 경우가 아니면 이해해 준다고 한다. 현재 어른보다 아이들의 숫자가 더 많



흩어진 세대를 찾아 나서고자 그레이스커뮤니티 처치를 개척한 빌리 박, 에디 림 목사

은 상황인데, 그 중 한 아이는 말씀을 듣다 종종 어른들도 생각지 못한 부분을 질문해 놀라게 하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그레이스커뮤니티 처치는 앞으로 커지더라도 가족들이 함께 하는 예배는 고수할 것임을 밝혔다. 어릴 때 다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의 유산과 말씀을 나누고, 하나씩 어른들의 행동을 통해 익히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도 본 것과 배운 것이 하나 되는 때가 올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박 목사는 "미국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전멸화 되면서 부모와 떨어져 예배를 드리던 아이들이 자라나 '조용한 탈출'을 하고 있다. 부모는 자녀가 신앙적으로 무엇을 배우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자녀들 또한 말하지 않는다.

미국교회들도 문제를 깨닫고 다시 가족 중심의 예배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교회에서 주일에 자녀를 맡기면 담당 편할지 몰라도, 귀

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기회가 적어진다. 물론 1-3세 아이들을 위한 유아방을 만들고 아주 갓난 아이들을 보면서 엄마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이지만, 5살 정도 되면 예배당에서 엄마, 아빠와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려고 한다"고 앞으로의 방향을 소개했다.

에디 림 목사는 "얼마 전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니 부모님이 방문해주셨는데, 영어는 다 알아듣지 못하셨지만 많이 은혜 받고 기뻐했다. 부모님부터 제 아이까지 4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 큰 은혜와 감동을 주셨다"고 덧붙였다. 그레이스커뮤니티 처치가 꿈꾸는 미래의 예배 모습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

그레이스커뮤니티 처치의 '가족 중심의 교회'가 안으로 끌어 당기는 구심력이라면, 동시에 밖으로 나가는 원심력인 '선교하는 교회'도 그만큼 중요한 요소다.

교회가 위치한 애틀랜타 스와니 지역 인구의 25%는 아시아인데, 그 중 한국인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

이다. 전국에서 자녀를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 3위로 뽑힐 정도로 거주와 교육 환경이 좋은 곳이라 많은 한인들이 모이지만, 정작 한인들에 대한 스와니 정부 관계자들이나 지도자들의 인식은 매우 낮거나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빌리 박 목사는 "스와니 지도자들과 이야기 해보면 한국 사람들은 혜택만 받으려고 하고, '나타나지 않는다'고들 한다.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크고 작은 오해가 있고, 이게 쌓이면 한인들에게도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인사회와 주류사회를 잇는 역할을 해보고 싶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두 목사는 "쉬운 것이 다 올바른 것은 아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큰 교회가 목적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목적이기 때문에, 차근 차근 기초부터 닦아 나가야 한다. 이민교회의 또 하나의 건강한 모델이 되고 싶다"고 소망했다.

애틀랜타=박현희 기자

장재효목사의 반세기목회와 선교확장 보고서

"우리가 살기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롬 14:8)



이 책을 구입 탐독하실 때 영적신앙과 사역에 성령님께서 인도 역사하심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 책값으로 지불하신 10불은 한,미간 탁송운임과 구독자에게 배송 우편비로 사용될 뿐, 책값은 무료로 국제성은복음선교회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구입문의 : 213.739.0403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께 쓰임받자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께 쓰임받은 진실되고 충성스런 종의 고백은, 언제나 내가 한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주님께 쓰임받은 결과, 성령께서 역사하신 성과뿐이다!"

장재효 지음

크리스천이라면 나같은 죄인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의 고난과 대속의 죽임당하심에 대한 마음에 감동적인 부담감을 느끼며 살게 마련입니다. 특히 사명자로 택하시고, 보내시고, 세우시고, 붙들어 쓰심을 받는 목회자(선교사)라면 영적가치관이 예수님과 일치해야하고 구령성과를 위한 사명의지가 투철하여 금식기도하며 살리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필생의 사명의지로 복음의 제물이 되어 그리스도의 나라확장을 위해 애간장 태우며 노심초사 하시는 참된목자, 선한 사역자라면, 요즘같이 교회가 교리적으로나 특히 영적으로 혼란하여 교회가 침체한채 목회자들마저 인위적이고 인본주의적 설교와 목회로 하나님 말씀의 권능과 하나님 절대주권적 권위와 존엄을 훼손내지 못하는 것같이 교회마저 세속화 추세로 변질해가는 차체에 성령님의 계시와 조명, 체험과 감동에 의한 영감적 체질신앙은 지금도 진리지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되는 몸된교회로 계속 부흥하며 영적으로 성숙되어 인류 복음화를 위한 시대적 사명, 구령성과를 위해 더욱 요긴하고 힘있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실증적 목회사역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 내신 생생한 체험, 그 중 일부의 내용이 본 책에 담겨있습니다.

진실로 바른 목회를 열망하며 책임목회의 사명의지로 더 많은 구령성과를 위해 받은 바 주님의 은혜보답과 맡기신 사역의 영적성과를 위해 진중진력하시는 목회자라면 이 책을 탐독하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 시대에 요긴하고 더욱 힘있게 쓰임받을 유능한 사역자가 되게 하실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역설의 땅’ 중국, 향후 5년내 핵심 사안은 ‘가정교회’ 등록 문제

중국에서 일어나는 박해현장의 변화

초교과 국제선교단체인 오픈도어가 최근 주최한 회의에 참석한 두 명의 중국 가정교회 목회자들이 의미심장한 말을 전했다. “지금 우리는 아주 안락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을 선택한 대가를 치르고 있죠. 하지만 선교활동과 성장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중국 정부는 혼란과 두려움에 떨고 있다. 공산주의 사상을 고집한 채로 더 이상 입에 발린 말을 하지 않고, 시장조작이 모든 자본을 끌어들이도록 이끌면서 엄청난 경제 성장과 자유 증진, 신속한 서구화를 만들어 냈다.

천안문 광장 정면에 있는 사진 속의 모택동이 미소를 머금고 있지만, 변칙이는 내온으로 둘러싸인 광장의 다른 한쪽에서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상징인 커넬 샌더스(Colonel Sanders)가 활짝 미소짓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권위주의와 서양의 자본주의 사이의 몸싸움을 바탕으로 특유의 정서와 함께 예측 불가능한 종교-정치 관계를 맺고 있다.

한편으로 중국 정부는 전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 초강대국 대열에 오르면서 지도자들은 국수주의로 변했고 어떤 면에서는 반서구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최근 한

중국 주재 외교관이 “모든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마치 자신들이 새로운 지배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종 결과는 중국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바로 중국 옹호 작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기독교를 여전히 서양의 수입품으로 보고 중국 고유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교회는 당국을 상대로 방어 태세를 취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중국 정부는 예전에 비해 더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인구 문제를 비롯해 해결해야 할 경제적인 골칫거리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것은 물론 전국에 걸쳐 만연되어 있는 부패에 맞서 항의하는 폭동들이 일년에 15만명 정도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사회안정 유지와 고도의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날로 증가하는 사회악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될만한 정직한 협력자들을 찾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상황들이 중국 교회에 오히려 기회를 만들어 주게 된 일은 아이러니하다고 볼 수 있다.

중국교회는 정부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번성하고 있다. 크리스천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몰살당하지 않고 사회 일원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중국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서 이들을 통해 목적 달성을 원하는 순간 바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는 상황으로 바뀐다. 이런 이유로 크리스천들은 여전히 핍박을 받고 있다. 다음 네 가지 사안들은 오늘날 중국교회가 핍박에 처하게 되는 주된 이유다.

◆크리스천들의 영향력이 너무 지나치고 여겨질 때

정부 당국은 기독교가 주로 시골을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로 힘을 합치자 잔뜩 겁먹은 모습이다. 모택동 혁명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대중을 혁명으로 이끌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런 최근 당국과 이 거대한 네트워크 지도자들 사이에 조심스러운 대화가 오가기 시작하면서 가정교회에 대한 합법적인 등록절차가 가능해질 바라고 있다.

◆크리스천들이 지나치게 정치와 관련되었다고 여겨질 때

중국교회는 행동을 신중히 해야 한다. 사회유지를 위한 공산당의 권리를 위협하지 않으면서 사회개선을 위해 일해야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합의된 법률이 없으므로 어느 순간도

당국 관료들의 태도를 예측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한 내륙 도시의 가정교회는 운영하던 교아원의 문을 강제로 닫아야 했다. 관료들은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교아원 운영은 주 정부가 해야 할 일인데 당신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로채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다른 도시에서는 교아원 운영 사업이 공산당 체제를 전복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교회에서 교아원 사업을 계속 담당하고 있다.

베이징에 있는 쇼우왕(Shouwang) 가정교회 또한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 쇼우왕교회는 예배 장소로 마련한 부지를 공개적으로 개조하고 정부에서 허가 받은 삼자교회 밖에서 모임을 갖고자 계획하였으나 교회 문을 연 2011년 4월 11일 지도자들이 체포되었다. 그러나 베이징의 다른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는 부지 마련 후 공개 모임을 가질 당시 쇼우왕교회와는 다르게 행동했다.

그 교회 지도자는 “저희는 밖으로 나가 대립을 야기시켰던 쇼우왕교회처럼 공격적으로 우리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습시다”라고 말했다. 쇼우왕교회 집회는 공산당에 정치적인 위협으로 간주되어 핍박을 받게 된 것이다.

◆기독교가 지나치게 외국 것으로 인식될 때

교회가 외국에서 도입되어 외국 의 서적과 지도력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여겨질 경우 그건 바로 외국인의 지배를 싫어하는 중국인들의 심리 속 깊숙이 무언가를 세뇌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중국의 기독교가 좀더 중국인의 고유한 특성에 맞게 전파되는 것이 중요하다.

◆기독교가 지나치게 광신적인 종교 집단으로 인식될 때

가정교회에서 비정통적이거나 극단적인 가르침을 할 경우, 정부의 표적이 되어 파룬궁(Falun Gong)과 같은 불법 종교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교회에서 발생하는 이단문제로 인해 많은 선교단체에서 이런 노력의 상당수가 헛수고로 돌아가고 있다. 앞으로 새로운 중국 지도자들은 종교에 관심을 갖는 대신, 몰살하지 않고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이러한 가운데 가정교회는 위험한 지 기회인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신중을 기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무슨 일이?

◆시각장애인 인권운동가 천광청에 대한 일련의 보도

올 봄 전 세계에 중국이 어떠한 나라인지 알게 해준 사람이 있는데 그는 41살의 시각장애인으로 이름은 천광청(Chen Guangcheng)이며 독학으로 법률을 공부하여 변호사가 되었고 6년 전 고향인 산둥 지방에서 낙태를 강요하는 정부의 관행을 폭로한 인물이다. 겁 없는 행동에 대한 대가로 그는 4년 동안 감옥생활을 해야 했고 연장해서 19개월의 가택 연금을 선고 받고 지내던 중 2012년 4월 22일 베이징에 있는 미국대사관으로 탈출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반응은 오늘날 가정교회 크리스천들이 직면하고 있는 역학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처음에 정부 당국은 공개적으로 몹시 화를 내면서 미국 정부에게 천광청을 넘겨줄 것과 대사관에서 그를 보호했던 일과 관련하여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중국 정부는 남몰래 대사관으로 그를 인도한 지하인권운동조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했다.

그러나 끝이 어둠이 미국 관료들과 체면을 살리기 위한 협상을 비밀리에 끝마친 후 천광청이 미국에서 1년간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했고 그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5월 19일 미국으로 넘어갔다.

◆과연 어떤 모습이 중국의 모습일까

공식적인 위법 행위를 폭로한 변호사를 상대로 혐의를 조작하며 악재를 괴롭히는 모습이 진짜일까? 아니면 관련자들이 자유를 좀 더 누릴 수 있도록 실용적인 해결책을 찾는 상당히 합리적인 태도를 갖춘 모습이 진짜일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혼란스럽게도 중국이 두 가지 얼굴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정교회 근절

미국에 있는 중국인권단체인 대화원조협회(China Aid Association, 크리스천이자 반체제 인사인 밥 푸가 운영하는 단체, 밥 푸는 천광청의 탈

출을 도운 인물)는 지난 4월 20일 중국공산당이 2010년 12월부터 가정교회 근절을 위한 10년 계획을 실행해 왔다는 내용의 기사를 발표했다.

비슷한 내용의 기사가 4월 25일 CDN(Compass Direct News)에도 소개되었는데, 기사에 따르면 대화원조 협회는 공산당이 이 계획에 ‘작전 저지’라는 이름을 붙이고 가정교회가 삼자교회에 가입하도록 강하게 밀어붙이거나 또는 거대해지는 가정교회 모임을 최소한 해체시키는 방법을 관료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비밀 문서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계획은 국가종교사무국에서 기록을 컴퓨터에 저장하고 가정교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10년 안에 근절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공산당이 국가종교사무국에 가정교회에 압력을 넣어 삼자교회에 가입하도록 내린 공식적인 명령이 있지만, 근절 문제와 관련된 증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다섯 개의 주요 농촌, 도시 가정교회 네트워크 지도자들은 그 문서에 관한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한 지도자는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정부와 대화 중입니다. 정부는 가정교회를 등록시킬 방법을 찾고 있고 우리 역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자교회 등록은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그들 중 공산당의 가정교회 근절 계획에 대해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정부 내 한 당파가 이 전략을 시도하고 있을 법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당국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종교 활동에 대해 압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이상의 핍박을 가정교회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 가정교회 등록 문제는 앞으로 5년 간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다.

한 지도자는 “가정교회가 등록하게 되면 지금보다 나은 합법적인 보장을 비롯해 자신 단체를 설립하고 교회 건물을 짓는 등 여러 가능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네트워크가 완전히 공개된다면 절대 등록하지 않겠지만, 협상을 통해 부분적으로 공개하는 것이라면 대화를 계속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입니다”라고 전했다.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제공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 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팩스 : (213) 402 - 5136
E-mail : chdailya@gmail.com /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 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이상명 목사의 성서로 문화 읽기

위기의 교회, 희망을 논하다(1)



이상명 목사

미주장로회신학대학 총장

개신교회가 흔들리고 있다. 그것도 뿌리째 흔들리고 있고, 외부의 도전 또한 만만치 않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내 개신교 교세의 감소는 과거에 비해 가속화되고 있다.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로 인식되어 온 미국 내에서조차도 개신교는 점점 게토(ghetto)화 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2011년 미국교회협의회(NCC)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한해에도 북미 지역 교회 전체 회원 수가 약 1%(145만 8000여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에는 지난 십년간 개신교인의 숫자가 14만 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통계청이 발표했다. 물론 교단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감소세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금년으로 135년 역사를 맞이한 한국 개신교 역사와 200년 이상 된 미국 개신교 역사는 서로 맞물려서 세계사의 향방을 결정짓는 커다란 한 축이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사(선교사)에 한 획을 그은 중대한 사건이었다. 교회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성장한 한국 교회와 명

실상부한 기독교 국가로서 위업을 떨쳐온 미국에서 개신교의 위기는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체감적으로 느끼는 현상이 되었다. 위기의 교회, 무엇이 문제인가?

중심을 잃은 외형적 성장에서 복음의 알짜에 근거한 성장으로

교회는 생명이 약동하는 유기체와 같다. 그러기에 성장은 너무나 당연하고 필연적으로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을 위한 성장인가를 물어야 한다. 목회자의 자기과시적인 허세와 맞물려 호사스런 예배당 건축과 관료적인 교회행정과 자본주의적인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교계의 현실 속에서 복음의 정신이 질식당하고 있다. 성공 신화와 번영 신학에 물든 채 교인수와 일 년 예산으로 목회자의 능력과 리더십이 검증되는 세대가 당연한 듯 인식되는 풍토 속에서는 건전한 복음이 자랄 수 없다.

“좋은 것이 좋다”는 단순 논리에 기반 외형적 성장이 마치 복음의 실행인 것처럼 오인된 위태로운 상황에서 진정한 복음이 제공하는 영적 생명 공간은 제한되거나 협소화되고 있다. 맘몬에 철저히 내려야 할 교회가 오히려 맘몬과 그 정신이 할거하는 공간으로 변질될 때 하나님은 퇴락한 그 예배당에 계시지 않음이 분명하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 6:24)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예수님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막 11:17)이라 규정하셨다. ‘만민’이라

는 단어가 내포한 포용적 의미와 ‘기도하는 집’이란 소박한 의도 위에 성전이 세워져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러한 포용적 의미와 간단 소박한 기능을 멀리할 때 교회는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처럼 타락하고 마는 것이다. 아니 성전 자체보다는 성전을 떠받치고 있는 관료화된 성직체계가 더 심각한 문제였다.

재삼재사 강조하지만 교회의 성장은 필요하고 당연하다. 문제는 성장의 동력과 방향이다. 주객을 전도한 성장이 문제이다. 외형적 성장을 위해 교회의 본질과 복음의 정신을 잃어가고 있다면 외형적 성장을 잠시 중단하고 안을 찬찬히 살펴야 할 때이다. 목회자의 야망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 양 포장되지는 않았는지, 성령의 지도보다는 자본주의의 논리에 기대지는 않았는지, 외형적 성장을 위해 생명지향적인 관계를 버리지는 않았는지를 물어야 할 때이다. 복음의 알짜를 버린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며, 잠시 동안 ‘반짝 성장’은 할 수 있겠지만 세대와 세대를 잇지 못한 채 한순간 무너짐은 처참할 것이다.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를 제어할 수단은 없지만 동지를 치고 머무르지 않게 할 수는 있다. 교회의 직분을 맡은 이들 역시 마찬가지다. 미혹과 욕망이 지나갈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동지를 쳐서 알을 낳지 않도록 복음의 알짜를 다시 붙잡아야 할 것이다.

권력지향화에서 본질지향화로

현대 교회는 이제껏 네 가지 단계

를 밟아 오면서 현재 위기에 봉착했다. 그 네 가지 단계란 교회 성장, 교회 성장 후기의 성장 정체, 수평 이동과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난 개인적(홀로의) 영성 추구이다. 이러한 정체와 원인은 교회가 섬김 대신 권력을, 변두리 대신 중심을, 알짜보다는 화려한 외형을 추구하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교회는 필요한 조직을 세워나가면서도 성령께서 언제나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인위적인 것을 최대한 걸러내야 한다. 지나친 형식추구로 인해 알맹이, 즉 복음의 정신을 잃지 않도록, 조직을 인위로 세우는 데 열심인 나머지 그 조직을 진실하게 할 회중 각자가 지닌 성령의 은사가 그 속에서 질식당하지 않도록, 영적 권위는 존중받되 그것이 권력화 되지 않도록 교회는 늘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한다. 그것이 뒤바뀌면 본말이 전도된다. 구유를 소중히 여긴 나머지 그 구유 안의 아기 예수님을 버릴 수는 없는 법이다. 교회의 직분도 그러하다. 어쩌면 교회가 영적 탄력과 그 순수성을 서서히 잃기 시작한 것은 교회가 점점 제도화 되고 권위적이 되면서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공간이 점점 좁아진 데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초기 교회는 처음부터 직제를 갖춘 제도화된 교회는 아니었다. 교회 회중이 각자의 은사에 따라 상호적 관계로 제 역할을 감당한 평등지향적인 공동체였다. 이러한 평등지향적인 교회가 점차 교권화되어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 본위의 조직으로 쉽게 전락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역에 다다르려는 오만

함을 뜻하는 헬라어 ‘휴브리스(hubris)’가 권력을 거머쥔 인간의 눈을 멀게 하여 위에 계신 분을 망각케 한다. 휴브리스에 빠진 교회의 권력이 더 위험한 이유가 여기 있다. 휴브리스의 눈에 빠진 교회는 교권(敎權)을 하나님 자신에게 부여한 무한권력처럼 휘두른다. 십자가 장식을 내걸었지만 십자가 정신을 잃어버린 십자군 원정처럼, 휴브리스에 빠진 교회는 십자가를 칼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위험을 스스로 내포하고 있다.

교회가 휴브리스에 빠질 때, 거룩한 권위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섬김의 은사로 사용하기보다는 남을 배척하고 억압하고 약자 위에 군림하는 공동체로 전락하고 만다. 하나님의 선택 받은 자라고 하는 영적 교만으로 인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타인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서(마 7:3; 눅 6:41) 정죄하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

교회가 휴브리스에 빠져 권력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복음의 정신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권력 지향적인’ 교회가 아니라 ‘본질지향적인’ 교회, ‘센터(center)’로 나가려는 구심적 교회가 아닌 ‘변두리(margin)’를 향해 뻗어 나가는 원심적 교회가 복음적 교회이다. 원심적 교회는 외형적 성장보다는 복음에 근거한 생명을 분여(分與)하기 위해 낮고 소외된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교회이다. 뻗어나가되 낮아지고 섬김으로써 성장하는 교회이다. 이런 교회가 겨우싸에 깃든 생명의 신비를 구현하는 ‘하나님 나라’ 지향적인 교회이다. <계속>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삶(9)



이영두 목사

호크마신학대학 교
영성신학박사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것 중 하나는 성령에 의해 인도받는 삶을 살고자 하면 육체의 소욕이 늘 방해한다는 것이다.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생명인 줄로 알고 있지만 생명으로 살고자 하면 육체의 소욕이 거부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두

갈래 길에서 방황하면서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성령을 좇아 행할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 육체의 소욕은 마음 깊은 곳에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에 오늘은 영적 성숙을 위해 자신이 무엇을 좇아 행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육체의 소욕에서 떠나라(갈 5:17)

육체의 소욕은 육체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이루려고 하는 육체의 욕망이다. 바울은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15가지로 지적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이다. 그리고 성령의 열

매로는 9가지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말했다. 사람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육체의 소욕대로 살다가 육체가 다할 때 함께 망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좇아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 것인가.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자 한다면 성령을 좇아 살아야 한다고 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박은 자들이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 계속 살아있는 것은 성령을 좇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교회를 오래도록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분쟁과 시기와 방탕함에 머무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죽지 않았거나 다스려지지 않아서 나타나는 증거다. 한 예로 다윗이 음

육을 다스리지 못해 자기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를 자기 아내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삼하 11장)고 하셨다. 다윗은 자기가 행한 악함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지만 다윗과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이의 생명은 거두어 가셨다. 육체의 소욕에는 죄와 결과에 대한 책임이라는 문제가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오늘날 육체의 소욕이 강하게 나타나는 시대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셨지만 나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육체의 소욕이 허물어지고, 부서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한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고통은 따른다. 그러나 감사하라. 이는 영적인 축복의 지리도 않는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리스도께서 흘린 보혈의 능력은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을 좇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다. 육신의 소욕이 차지하고 있던 당신의 마음 공간을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라. 성령으로 좇아 살지 아니하면 이내 육신의 소욕이 그 자리를 다시 차지하려 할 것이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육체가 좋아하는 것이라 생각되면 그만두고 중단하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자신을 주님께 맡기라. 이러한 방법이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의 삶에 날마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바란다.

여드름, 성공률 99%

효과 없을시 **100% 환불**

몸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첫상담 무료!

경산 한의과병원 원장 류재규
KYUNG SAN ACUPUNCTURE CLINIC | 경산 한의과대학 교수

Tel: **213.380.0853**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삼호관광 물 2층) LA, CA 90006

북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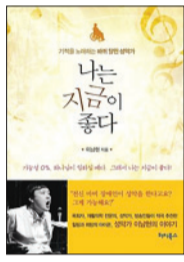
하이델베르크교리문답으로보는십계명
코르넬리스 프롱크 | 그책의사람들 | 168쪽

주기도문에 이은 저자의 '교리문답으로 보는 기독교 기초 진리' 시리즈다. 십계명이 가르쳐 주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지, 십계명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우리는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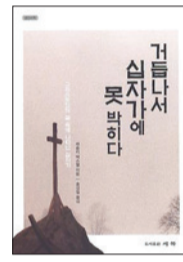
나는 지금이 좋다
이남현 | 터치북스 | 256쪽

'기적을 노래하는 바퀴 달린 성악가'인 저자의 간증집. 사고로 목뼈가 부러져 전신 마비 장애인인 됐지만, 절망하지 않고 당당하게 성악가가 된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은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신 게 아니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신 다음 더 많은 것들로 채워 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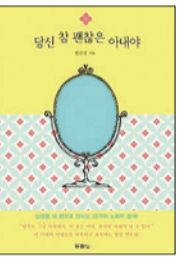
거듭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다
레슬리 맥스웰 | 세복 | 280쪽

세상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 붙들려 능력 있게 쓰임받는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책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이기고 능력 있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보여 준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다시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함을 말하고 있다.



당신 참 관참은 아내야
한은경 | 두란노 | 228쪽

아버지학교 김성목 장로의 '좋은 남편 되기 프로젝트'를 잇는, 어머니학교 한은경 권사의 '좋은 아내되기 프로젝트'. 좋은 아내와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내용은, 저자가 직접 경험한 내용과 가정사역자로서 접한 사례들을 부담 없이 전한다. 부제는 '남편을 내편으로 만드는 22가지 노하우'.



REVIEW

'설교의 황제' 찰스 스펠전은 '기도' 를 어떻게 가르쳤나

그는 막연하거나 근거 없는 주장을 늘어놓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 빈민가나 길거리를 가리지 않고 전도에 나섰지만, 그는 모든 사역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기도 훈련'이라고 가르쳤다. 교회에 생명력이 넘치려면 기도 모임이 중요하고, 기도 모임을 살리면 교회와 성도 모두 회복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19세기 영국이 낳은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펠전(Charles H. Spurgeon·1834-1892) 이야기다.

스펠전 목사가 '설교의 황제'가 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바로 '기도'에 있었다. 그는 설교를 하기 전, 늘 수 시간 동안 기도했다는 것이다. 금식기도 기간을 정하기도 했고, 특별기도의 달을 마련해 집중적으로 기도에 나섰다. 성도들도 그런 그의 사역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했다. 이러한 스펠전이 기도에 대해 따끔하게 조언한 27가지 목록을 모은 <스펠전의 기도 레슨(샘솟는기쁨)>에는 그의 기도에 관한 경험과 성찰, 그리고 조언이 담겨 있다. 기도에 대해 막연하거나 근거 없는 주장을 늘어놓지 않고,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 기도에 관한 우리의 생각을 바로 잡는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울긴이의 말). 직접 기도해 본 경험을 토대로 '레슨'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스펠전 목사는 '존귀함을 누리야 베스처럼', '고난을 극복하는 다윗처럼', '복을 누리 읊처럼' 기도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솔로몬에게서 배우라'고 한다. 특히 '환난날'에 주님을 힘써 부르짖어야 한다. 이



스펠전의 기도 레슨
찰스 스펠전 | 샘솟는기쁨 | 232쪽

러한 그의 가르침은, 그의 설교가 그러하듯 철저히 성경 말씀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일례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우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라는 시편 70편 5절을 토대로 그는 '응답받는 기도의 4가지 특징'을 이야기한다.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고백하는 영혼과 '하나님여 내게 임하소서'라고 변론하는 영혼, '속히 임하소서'라 부르짖는 절박한 영혼과 하나님을 붙잡는 영혼이 되어야 한다고 그는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27가지 기도에 대한 조언이 끝나고 나면, 스펠전이 경험한 '완전한 구원의 날'에 대한 신앙고백, 그리고 그의 간략한 삶과 사랑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에서!

1539 E. Howard St. Pasadena, CA 91104. 626.398.2415
conference@wciu.edu www.wciuproperties.com/



Gold Finger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전화주시면
출장 주문, 가봉
완성후 배달

Business hour 8:00am to 7:00pm
www.facebook.com/GoldFingerTailorLA

골드핑거
남녀맞춤, 명품 옷수선

맞춤 양복 이래서 좋습니다.
한울한울, 장인의 혼을 담은 맞춤 양복,
고객의 마음까지 담은 맞춤양복, AS는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Master Tailor-Byung Ho Kim (Kyung Sik)

- 법무부 직업훈련원 감독위원 역임
- 서울지방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역임
- 한국복장기술경영협회 상임 이사
- 한국아트패션 회장
- 90년 한국남성복기술경진대회 창작 최우수상
- 94년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상
- 95년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상
- 대림 라사운영 1979-2000

975 S.Vermont Ave.#102, Los Angeles, CA 90006 T.213.386.5858 / C.213.663.9556

신간 독서문화 활성화 앞장서는 송광택 목사의 '책 읽어주는 책'

초신자들의 서재에는 어떤 책을 꽂아줘야 할까



기독교인의 서재 송광택 | 보아스 | 232쪽

기독교 독서문화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송광택 목사(한국교회독서문화연구회 대표)가 '신앙 성숙을 위한 책 읽기'를 담은 <기독교인의 서재(보아스)>를 출간했다.

송광택 목사는 한국교회의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총신대 평생교육원에서 '독서지도사' 운영 및 강의를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저자로는 <고전의 숲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기독교인이 죽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할 책 100>, <우리 아이 영성을 키우는 책 읽기> 등을 저술한 바 있다.

저자는 이 책의 목적을 "초신자들이 신앙서적을 통해 신앙의 기본을 갖추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라고 밝히면서, '초신자에게 있어 독서의 의



송광택 목사

누리기 위해서이다.

송 목사는 "초신자는 책 읽기를 통해 기독교인으로서 얻는 유익을 향유할 수 있고, 성경과 기독교 고전, 신앙서적과 양서를 통해 기독교 세계관을 세울 수 있을 뿐더러 독서로 영적 성숙을 위한 자양분을 얻을 수 있다"며 "기독교적 삶의 모든 것은 아는 것을 행할 때 드러나므로, 머리

미를 세 가지로 잡고 있다. 첫째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서, 셋째는 풍성한 삶을 발견하고

이러한 목적에 걸맞게 저자는 여러 책들을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고 싶을 때', '튼튼한 믿음을 갖고 싶을 때', '응답받는 기도를 하고 싶을 때', '노아처럼 인내해야 할 때', '욥처럼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야 할 때', '교회생활을 잘하고 싶을 때', '믿음의 롤모델을 읽고 싶을 때' 등으로 분류하여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토마스 아 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처럼 고전도 나오지만, C. 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나 데이비드 그레고리의 <예수와 함께한 저녁식사> 같은 신(新)고전과 <그 청년 바보의사>, <너부이치치의 허그>, <아? 성경이 읽어지

네> 등 최근 도서들을 알려주면서 기존 책 소개 도서들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또 각 단원마다 '더 읽어볼 책'을 소개하면서 독서의 범위를 넓혀주고 있기도 하다.

저자는 "교회 역사를 보면 기독교 고전과 신앙서적은 진리의 등불과 양심의 안내자, 교회개혁과 부흥의 도구가 되기도 했고, 박해당하는 성도들의 위로자와 상처 입은 자들의 의사가 됐다"며 "본문에서 다룬 책들과 '더 읽어볼 책'의 책들을 한 권씩 읽어가다 보면, 신앙의 새로운 지평이 보이게 되고 성숙을 위한 디딤돌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대웅 기자

[예수님 마음으로 책 읽기] 맥스 루케이도의 <돌아서라>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 책은 역대하 7장 14절을 목상한 것입니다. 말씀 목상의 참신함을 보여주는 저자의 색깔을 다시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자는 본문에서 다섯 가지를 찾아, 우리의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말합니다.

7년 동안의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이 드린 기도는 언제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대하 6:26-27).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드리는 왕 솔로몬, 정말 이 나라에도 그런 지도자들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1) 기억하라(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거미가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거미줄은 점점 커졌고, 규모가 확장되면서 파리 같은 먹이들이 걸렸습니 다. 날마다 집이 커지고 먹이들이 많아지자, 이웃 거미들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거미는 서까래에서 내려온 거미줄 하나를 발견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필요가 없어 보였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먹이를 잡고 집을 확장

할 때,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결국 아무 쓸모가 없다고 판단한 거미는 이 줄을 끊어 버렸습니다. 그 순간 거미집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고, 거미도 줄과 함께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내용을 읽으며 거미줄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우리는 흔히 직선으로 뻗어 있는 '방사실'과 원형으로 펼쳐지는 '나선실'을 생각하는데, 이 모든 거미줄이 튼튼하게 유지되려면, '고정점과 지지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 한 점에서 튼튼하게 시작되어야, 계속 뻗어가는 거미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거미줄 이야기가 우리 인생이라고 느꼈습니다. 집이 조금 커졌다고 해서, 먹을 것이 조금 더 많아졌다고 해서, 내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믿음의 줄, 기도의 줄'을 끊어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내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여" 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2) 돌아서라(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교회에 자주 오는 성도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

사합니다. 저는 도둑질한 적이 없습니다. 감옥한 적도 물론 없었고요. 그리고 불의한 일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나라와 교회에 나 같은 사람이 존재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의 성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세상 속에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로 용서해 주시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에게 돌아서서 살겠습니다."

두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눅 18:14)".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돌아서는 사람은 복을 받고, 자기 의를 구하며 세상을 향해 마음을 돌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3) 기도하라(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저는 성경에서 본문 다음 구절을 읽으며 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제 이 곳에서 하는 기도



돌아서라 맥스 루케이도 | 생명의말씀사 | 11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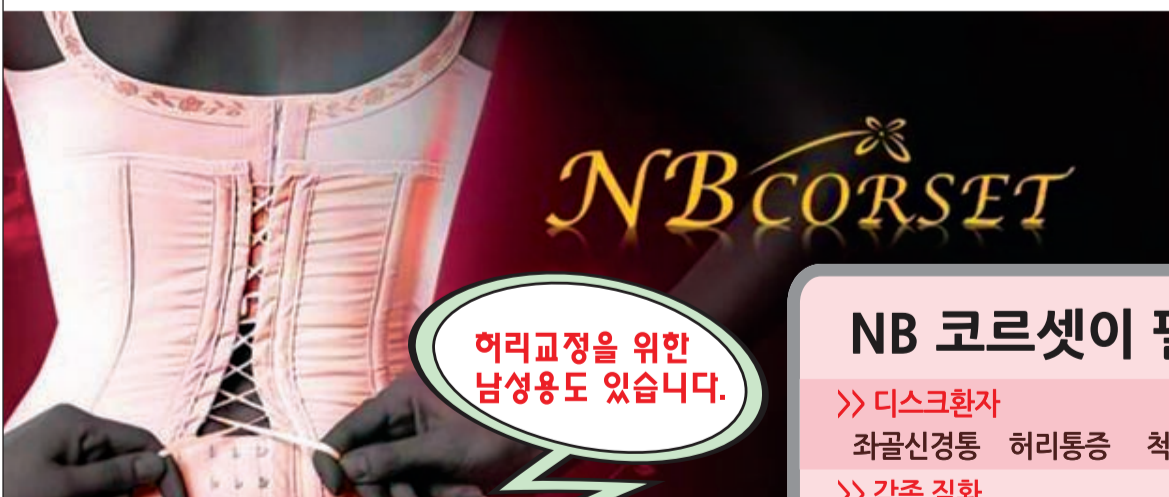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대하 7:15-16)". 하나님의 눈과 귀는 항상 '성전'에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 곳에서 하는 기도 '눈'으로 보고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교회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면서 그 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4) 찾으라(내 얼굴을 찾으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사 55:6)"는 말씀처럼, 성경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분이지만, 그분의 편지인 성경을 읽고 삶의 각 부분에 적용하면, 반드시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5) 기대하라(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사는 땅을 고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약 5:16, 표준새번역)"는 말씀처럼, 아빠 하나님을 향한 기대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책을 읽었다는 느낌보다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따스한 교훈을 하나 준 느낌이 납니다. 첫 사랑과 첫 영광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바라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어렵더라도, 나를 사랑하는 그분을 바라보며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뜻심김지기 이훈 목사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희안한 옷!!

너무 쉬운 NB 코르셋의 원리를 알면 통증의 원인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NB 코르셋은 내 몸을 멋진 틀(NB 코르셋 김스에 넣어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과학과 지혜로 미와 건강을 만들어 내는 걸작품입니다.



여리교정을 위한 남성용도 있습니다.

NB 코르셋의 특징

- 1. 24시간 입어도 갑갑하지 않고 편안함
- 2. 입자마자 자세가 달라짐(교정)
- 3. 입자마자 혈액순환이 달라짐(통증완화)
- 4. 특수 공법의 인체에 완벽한 섬유+세계 특허 이중 지퍼사용 한 식약처에 의료기기로 등록된 옷.

NB 코르셋이 필요하신 분

- >> 디스크환자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교통사고
- >> 각종 질환
요실금 중풍 관절염 손발 저림 만성피로
- >> 체형교정
골반 틀어진 분 허리 굽으신 분 O형다리 거북이목
- >> 미용효과
목주름 많은 분 얼굴비대칭 복부비만 부정교합

쓰러진 토마토를 세우는 것은 버팀목입니다. 의사가 척추를 바르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김스를 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팀목(기립근)이 약해서 제대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NB 코르셋은 늘어지지 않는 특수 천으로 김스를 대신하고 코르셋 속의 10개의 버팀목이 약한 근육을 대신하여 골반과 척추와 경추를 바르게 교정해줍니다.



NB CORSET Tel: 323.316.6815 WWW.nbcorset.co.kr 3456 W.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무료 광고지참시 방문하신 모든분께

*자세 사진 촬영 *현미경 혈행 검사 *체질 검사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혜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Tel. 323.737.5900 Fax. 323.737.5987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중고차 황제 김기형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페인팅 (PAINTING) 마루 (Hard-wood Flooring)

정직 (HONESTY)! *HAND MEN AVAILABLE

(213) 923-2915 U.S. ENTERPRISE Co.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가격 때문에 컬러 레이저 프린터 사용을 망설였던 목회자분들에게 희소식!

Only \$99.99/month (up to 2000 pages)

프린터 판매 및 리스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판다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지용 Boltless Shelving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려임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창고용 Gondolas

중고 선반 대량 보유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 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K.T. 택배 T. 213-365-8588

말도 안되는 가격 \$ 6.99 초고속 픽업 & 배송!!

전화 한통화로 당일무료 픽업!

무료포장 (박스, 충격흡수제 무료)

최저 가격!! 인터넷 사업자 대박우대

소량화물 4개중 1개 공짜!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는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보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전기, 철공 용접, 게이트 모터 수리

계단, 펜스, 창틀, 보조문

경남 철공소

213-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튜닝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커피 미니 자판기 CoffeeTreeUSA

따스하고 맛있는 커피를 저렴한 가격으로 간편하게 즐기세요.

밀크커피/한국차(유자차, 검은콩 울무차, 대추 생강차) 핫초코/카푸치노/블랙커피

T.213-272-7502 www.Coffeetreeusa.com
1513 S. Victoria Ave Los Angeles, CA 90019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차과와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시온마켓 내

치우차우만두

- 짬뽕
- 고기만두
- 김치만두
- 야채만두
- 물만두
- 군만두

교회 단체주문 환영합니다. 냉동만두 판매/매달합니다.

CHIU CHAU MANDOO 213.368.0922
3500 W. 6th St., Suite 100 Los Angeles, CA 90020

선녀탕(仙女湯)매매

Meaning yellow matter 금중에서 나오는 물
The natural minerals, sulfur, Calcium and magnesium with arsenic(비소). 최상급 수질, 최고수준 자연온천을 매매합니다.

선녀가 내려와 목욕할 정도의 최고급 수질 온천을 일명 선녀탕이라고 하는데 각종 천연 미네랄이 풍부하여 노상 온천 중에 최고라 할 수 있습니다. Lake Isabella 근처 최상급 수질의 선녀탕, 각종 천연 미네랄이 풍부하여 치료와 미용에 으뜸인 자연 온천에 귀신 분들의 투자, 동업 내지는 매입을 원하시는 분들을 찾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818-371-0763

세종 뇌보감 골드 "치매예방, 뇌졸중예방, 기억력을 개선합니다"

"추억도 기억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세종바이오텍 SEJONGBIOTECH, INC.

세종 송보감 "충추는 당노를 잡아라" "막힌 혈관을 뚫어라"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www.sejongbiotech.us

세종 요로청보감 "요실금, 오줌소태 개선" "전립선건강에 탁월한 효능"

목회자분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213-383-8899
621 S. Virgil Ave #430 LA CA 90005(미주복음방송국4층)

진짜 발효삼? 고려 발효삼

"면역력 증진, 기력향상" "겉술로 만든 발효홍삼"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안목
실시간 업데이트 되는 생생한 기사

예 할 때 '예' 하고 아니오 할 때 '아니오' 하는 정직한 신문 **기독교일보**

기독교일보 ChristianDaily.com

Why dump starbucks?

한인 스포츠 영웅 새미 리 박사 실종 후 무사히 발견

한인 목사 100가 실종 후 무사히 발견

세계 성공회, 80명 희생자 낸 파키스탄 교회 테러 규탄



세계 성공회 지도자들이 파키스탄 교회 테러를 규탄하고 목숨을 잃은 80여 명의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명했다.

지난 주일인 22일(이하 현지시각), 파키스탄 북부 도시인 페샤와르에 위치한 성공회 교회인 올세인트스(All Saints)교회 앞에서 발생한 연쇄 자살 폭탄 테러는 최근 현지 교회를 대상으로 자행된 테러 가운데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낳았다. 사망자만 81명이었고 12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번 테러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탈레반이 자신들의 소행임을 주장하고 있다.

7천7백만 세계 성공회 수장인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는 2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서 “페샤와르의 시민들의 편에 서서 나는 파키스탄 정부와 선의를 지닌 모

든 이들에게 이들 기독교인 공동체들이 자신들의 일상적 삶을 안전 속에서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과 테러범들에 이반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특별히 “파키스탄 정부가 기독교인 국민들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와 전적인 지지를 보낸다”고도 전했다.

북미 성공회 역시 23일 이번 테러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로버트 던컨 대주교는 “이슬람주의자들의 자살폭탄 테러가 기독교인 남성과 여성, 어린이까지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며 수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심각한 손실을 낳았다”며 “우리는 파키스탄 교회의 형제 자매들의 슬픔을 함께 느끼며, 파키스탄의 국민들과

이들의 나라를 위해 날마다 더 깊은 기도를 드리고 있다. 이들은 우리의 친구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고 밝혔다.

미국 성공회의 캐서린 제퍼츠 서리 수좌주교는 22일 테러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서 기도를 요청했다.

서리 수좌주교는 “이 같은 폭력 행위는 생명의 소중함과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임을 일깨워 준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상처 받았으며, 모두가 가족과 친구 그리고 이웃을 잃었다”고 슬픔을 표시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사람들과 다친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떠난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들을 자비와 사랑의 두 팔로 받아주시기를 기도하자”고 촉구했다.

파키스탄은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오픈도어즈가 매년 발표하는 교회 탄압 국가 목록에 매년 빠지지 않는 나라 중 하나로, 올해는 기독교에 가장 적대적인 50개 박해국들 가운데 14위에 올랐다.

오픈도어즈는 파키스탄에서의 기독교 상황에 대해 “기독교인들은 이슬람 무장단체들과 이슬람 문화, 그리고 나약한 정부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순현정 기자

“정신질환 치료, 기도해야지 왜 약 먹냐” 편견 극복해야

미국기독교상담가협회 대표, 정죄 중단 요청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크리스천 중 50% 이상은 기도와 성경공부만으로 정신적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 믿고 있었다.

미국기독교상담가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Christian Counselors)의 팀 클린턴 대표는 이 결과에 대해 일단 “사람들은 희망과 도움을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구하고 있다.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했다.

응답자의 68%는 정신질환자가 교회에 가면 환대받을 것이라 답했지만, 54%는 교회가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더욱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클린턴 대표는 “교회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을 정죄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정신질환

치료를 기도와 성경공부가 아닌 약물에 의존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됐다”는 편견을 우려한 것이다.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에드 스테처 대표는 “교회는 정신질환에서 ‘질환’이란 단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의 유명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자녀의 정신질환을 공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릭 워렌 목사는 지난 주 CNN에 출연해 자신의 아들이 정신질환을 앓다 자살한 사실을 공개했다. 남침례회의 프랭크 페이지 전 총회장의 경우도 딸이 자살했다. 워렌 목사와 페이지 전 총회장은 자녀를 잃은 후, 정신질환과 자살 문제에 대한 교회의 관심을 요청하는 역할을 자처하고 있기도 하다.

김나래 기자

무디신학교, 직원 음주·흡연금지 규정 폐지

“성경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 아니라면 양심에 맡기기로”

미국에서 대표적인 복음주의 신학교이자 가장 강력한 규율을 갖고 있던 무디신학교(Moody Bible Institute)가 직원들에게 적용되던 음주·흡연금지 규정을 126년 만에 폐지했다. 이는 무디신학교에 소속된 전국 36개 무디라디오 등 모든 기관의 직원 약 600여명에게 적용된다.

크리스틴 고즈 부총장은 “성경이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직원들에게 강요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무디의 직원들은 성경의 완전함을 따라야 하지만, 성경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면 직원들의 양심에 맡기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런 규정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며, 학생들은 여전히 음주와 흡연을 할 수 없다. 직원들도 근무 중이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는 음주와 흡연을 할 수 없다.

김영신 기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저자, 실종 29시간 만에 발견돼

국제적으로 유명한 목회자이자 저술가인 헨리 블랙커비(Henry Blackaby·78) 목사가 애틀랜타 지역에서 실종된 지 24시간 만에 발견됐다. 헨리 목사의 가족들은 지난 20일이 같은 소식을 알렸다.

지난 19일 오전 블랙커비 목사의 사이트에는 “블랙커비 목사가 실종됐다. 그는 현재 제2형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이 때문에 방향 감각을 잃고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도를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다.

라이프웨이크리스천 리소스(Life-Way Christian Resources)의 CEO이자 회장인 톰 S. 레이너 박사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오늘 우리는 헨리 블랙커비 목사에 대한 긴급한 기도

제목을 알게 됐다. 현재 애틀랜타 지역에 살고 있는 그가 어제부터 사라졌다”는 글을 올렸다. 헨리 블랙커비 목사의 아들인 리처드는 “기도해 달라. 아버지가 19일 오후 4시부터 실종됐다. 당뇨병 약도 없이 검정색 옷을 입고 애틀랜타 지역 어딘가에 머물고 계신다”고 전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기도제목을 공유하면서 블랙커비 목사를 위한 기도를 요청했다. 그는 다음 주 하와이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 참석해 연설을 할 계획이었다.

헨리 카운티 경찰과 조이 스미스 경사에 따르면, 경찰은 블랙커비 목사의 신용카드 내역 추적 끝에 그가 티프톤시에서 혼자 있는 것을 발견

했다.

20일 그의 가족들은 블랙커비 미니스트리즈 인터내셔널(Blackaby Ministries International) 웹사이트에 “블랙커비 목사가 발견됐고, 현재 안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에게 알리고 싶다. 현재 목사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달하겠다. 지난 29시간 동안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사를 표하고 싶다. 헨리 목사는 우리가 선할 때나 악할 때나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 평화, 신실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실종됐다가 발견된 헨리 블랙커비 목사
헨리 블랙커비 목사의 손자인 다

니엘(Daniel)은 이날 오후 6시 15분 자신의 트위터에 “조금 전에 할아버지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경찰이 현재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 더욱 기도해 달라!”고 올렸다.

현재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며, 제일침례교회 글렌 호웨(Glenn Howe) 목사는 폭스뉴스라디오와 가진 인터뷰에서 “많은 이들이 이번 일을 지켜보면서 기도하고 있다”면서 “교인들은 철야기도에 참석했으며, 다른 이들은 경찰의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블랙커비 목사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Experiencing God)’은 약 700만부 이상 팔렸으며, 전 세계 45개 언어로 번역된 바 있다.

강혜진 기자

척추 전문 새로운 한방병원

비 수술 척추 디스크치료 척추 한방 병원

비 수술 척추 추나 치료
척추 교정으로 척추질환과 척추 통증 치료 예방이 가능합니다.

특진안내

- ▶ 중풍
- ▶ 안면신경마비
- ▶ 척추디스크 요통
- ▶ 목디스크, 어깨 통증
- ▶ 무릎 관절염
- ▶ 위장병, 변비
- ▶ 갱년기 장애
- ▶ 산전산후 보약
- ▶ 어린이보약, 성장탕
- ▶ 심장병, 노이로제
- ▶ 두통, 치통, 산후통
- ▶ 관절통

진료과목

- 침구과
- 한방 소·아과
- 한방 내과
- 한방 신경정신과
- 한방 산부인과

원장 장재수
40년 경력 척추 자세교정 전문가

T. 213-219-2739 3513 W. Olympic Blvd #102, Los Angeles, CA 90019

www.phhyundai.com

북미 최대 한인 현대 딜러



푸엔테힐스 현대 SUPER STORE

다양한 차량과 색상보유! 자체 파이낸싱과 특별할인 프로그램

9월의 스페셜



\$115 + TAX

48 Month lease / 12k mile / T.D.O 2,999

MSRP \$16,580 (STK # 549364)

PH HYUNDAI D/C	\$813	MILITARY REBATE	\$500
VALUED OWNER COUPON	\$500	COLLEGE REBATE	\$400

2013 ACCENT GLS



\$142 + TAX

48 Month lease / 12k mile / T.D.O 2,999

MSRP \$22,100 (STK # 795853)

PH HYUNDAI D/C	\$1,263	LEASE CASH	\$1,000
COLLEGE REBATE	\$400	MILITARY REBATE	\$500
VALUED OWNER COUPON	\$500		

2013 SONATA GLS



\$632 + TAX

48 Month lease / 12k mile / T.D.O 6,999

MSRP \$60,170 (STK # 069499)

PH HYUNDAI D/C	\$53,590		
COLLEGE REBATE	\$400	MILITARY REBATE	\$500
COMPETITIVE OWNER COUPON	\$1,000		

2013 EQUUS SIGNATURE

갖고 싶은 현대차를 가장 좋은 이자율로 모시고,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에게 더욱 만족을 드립니다! 지금 만나보세요!



에드윈 김

626.610.6570



로버트 정

323.839.7074



스티브 장

626.513.4005



찰리 정

626.513.4981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중개인으로부터 차를 구매하실 필요 없습니다.
중개 수수료없이 푸엔테힐스 현대를 통해 직접 구매하세요.

PH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1-888-212-6431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